

제2010-3호 / 2010. 1. 10 ~ 1. 16

해외경제 포커스



조사국 해외조사실

차 례

금주의 포커스

- ◇ 미국의 청년실업 급증 배경과 정책 대응1
- ◇ 향후 중국의 물가 여건18

주요국의 금융·경제

.....34

- ▷ 미 재무부, 금융위기책임세 부과 방안 발표
- ▷ 미 연준 Beige Book, 완만한 경기회복세 확산
- ▷ 일본 정부, 주택에코포인트제도 실시
- ▷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 ▷ 독일, 2009년 경제성장률 -5.0% 기록
- ▷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국제금융시장

.....49

- ▷ 금리
- ▷ 환율
- ▷ 주요국 주가

국제원자재시장

.....54

- ▷ 원유
- ▷ 비철금속 및 농산물
- ▷ 반도체 및 금

※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63

※ 주요국의 경제지표67

미국의 청년실업 급증 배경과 정책 대응

- ◆ 이번 경기침체기중 미국의 청년실업은 과거 경기침체기나 현재 주요 선진국의 청년실업과 비교해 볼 때 심각한 상황
- ◆ 청년실업 급증의 원인으로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청년층 고용의 특성,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연기로 인한 취업기회 제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수요 감소, 낮은 고용보호수준 및 노동의 질적 저하 등이 거론
- ◆ 청년실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행정부와 의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

1. 최근 동향

- 이번 경기침체기중 미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최악의 상황
 - * 미국은 청년(youth) 연령대를 16~24세로 규정.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조사 직전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고용되지 않은 자를 실업자로 정의
 - 2009.10월 청년실업률은 19.1%로서 1948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
 - 중장년층(25~54세)과의 실업률 격차도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0.2%p로 확대

미국 실업률¹⁾



주 : 음영은 경기침체기 표시
 자료 : 미 노동부

- 이는 미국의 이전 경기침체기나 현재 주요 선진국의 청년실업과 비교하더라도 심각한 수준
- 1980년 이후 4차례의 경기침체기중 청년실업자수는 평균 65만명 늘어난 데 비해 이번 경기침체기(2007.12~2009.6월로 가정)에는 두 배가 넘는 146만명이 증가

주요 경기침체기별 청년실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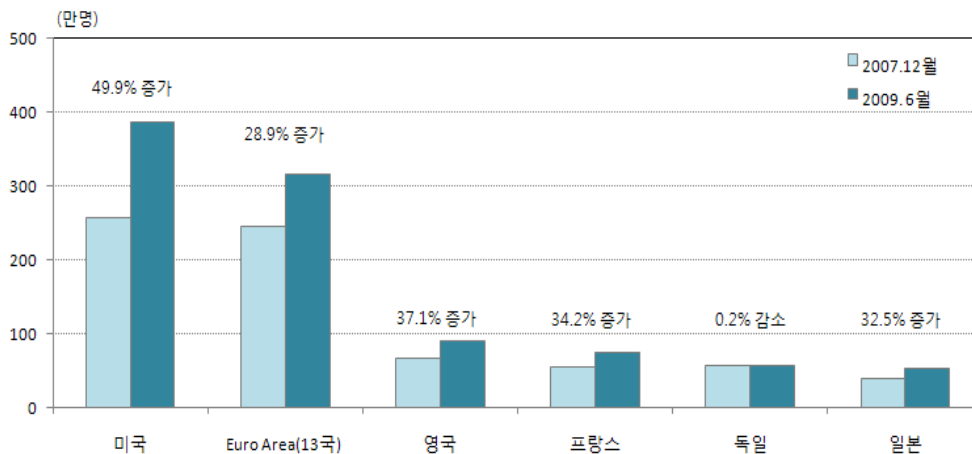
(만명)

경기침체 시기	경기침체 직전월(A)	경기침체 종료월(B)	B-A
▪ 80. 1 ~ 80. 7 (7개월)	315.7	378.0	62.3
▪ 81. 7 ~ 82.11 (17개월)	370.0	469.5	99.5
▪ 90. 7 ~ 91. 3 (9개월)	234.2	289.7	55.5
▪ 01. 3 ~ 01.11 (9개월)	218.5	261.5	43.0
▪ 07.12 ~ 09. 6 (19개월) ¹⁾	240.4	386.4	146.0

주 : 1) 경기침체 종료시점은 2009.6월로 가정
 자료 : 미 노동부

- 같은 기간중 미국의 청년실업자 증가율은 49.9%로서 유로지역의 28.9%, 일본의 32.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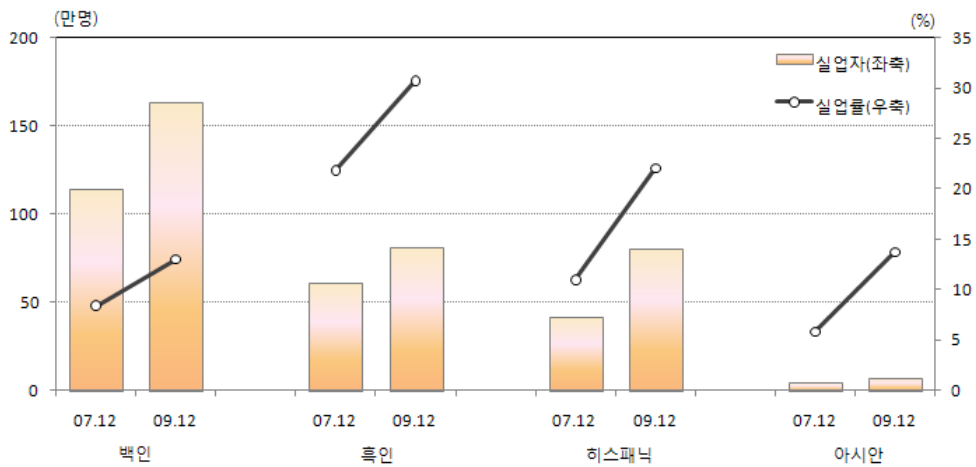
주요국 청년실업 규모



자료 : Euro Stat

-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의 청년실업자 증가율이 93.2%로 가장 높음
 - 이에 따라 히스패닉의 청년실업률은 22.0%(2009.12월)로서 가장 큰 상승폭(2007.12월대비 +11.0%p) 기록
 - 같은 기간중 백인의 청년실업률 상승폭은 6.1%p(8.9% → 15.0%), 흑인은 8.9%p*(21.8% → 30.7%)
- * 미국의 인종별 인구 비중(2008.7.1)은 백인 65.6%, 히스패닉 15.4%, 흑인 12.2%, 아시안 4.4%, 기타 2.4%인데 청년실업자 구성(2009.12월)은 백인 49.3%, 히스패닉 24.1%, 흑인 24.4%, 아시안 2.2%

인종별 청년실업



자료 : 미 노동부

- 업종별로 보면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매 등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청년 고용이 크게 감소
 - 청년고용의 약 78%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고용인원(2009.7월 기준)이 2007.7월대비 132만명 감소

미국 청년층(16~24세) 업종별 고용 현황¹⁾

(천명, %)

업종	고용 인원			
	2007.7월(A)	2008.7월	2009.7월(B)	B-A
▪ 농업·광업	442 [2.0]	525 [2.5]	425 [2.2]	-17
▪ 건설업	1,558 [7.2]	1,217 [5.8]	871 [4.5]	-687
▪ 제조업	1,398 [6.4]	1,390 [6.6]	1,068 [5.5]	-33
▪ 서비스업	16,321 [75.2]	15,887 [75.6]	15,003 [77.7]	-1,318
(Leisure & Hospitality) ²⁾	4,710 [21.7]	4,926 [23.4]	4,799 [24.9]	89
(소매) ³⁾	4,684 [21.6]	4,251 [20.2]	4,172 [21.6]	-51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2,238 [10.3]	2,175 [10.3]	2,141 [11.1]	-97
(전문 및 사업 서비스)	1,672 [7.7]	1,659 [7.9]	1,350 [7.0]	-322
(금융)	980 [4.5]	979 [4.7]	823 [4.3]	-157
(기타)	2,037 [9.4]	1,897 [9.0]	1,718 [8.9]	-319
▪ 정부	1,607 [7.4]	1,538 [7.3]	1,588 [8.2]	-19
▪ 자영업, 가족 고용	390 [1.8]	464 [2.2]	350 [1.8]	-40
총 계	21,717[100.0]	21,021[100.0]	19,304[100.0]	-2,413

주 : 1) []내는 총계대비 비중 2) 음식, 숙박, 오락 등 3) 도매 포함
 자료 : 미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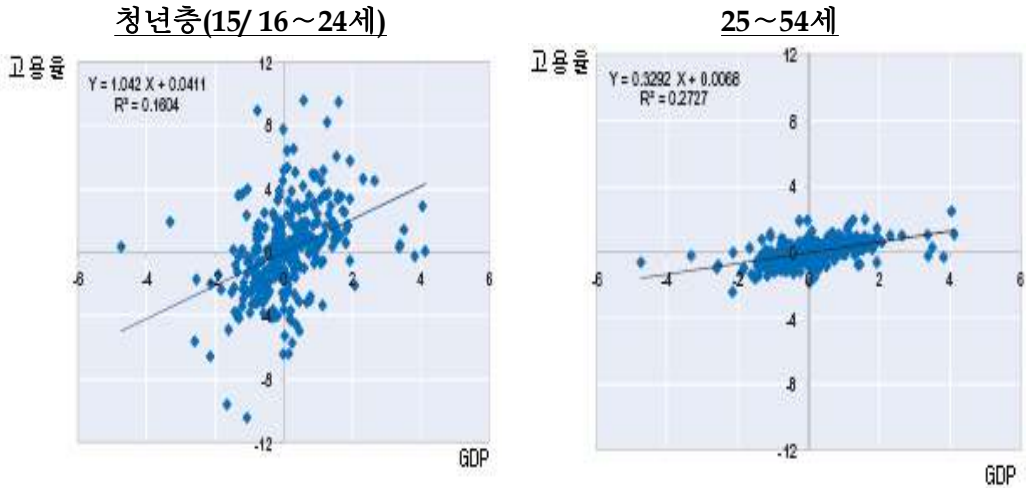
2. 청년실업의 급증 배경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

□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업무 숙련도가 낮은 데다 임시 고용형태가 많아 중장년층에 비해 경기변동에 취약*

* <붙임 1> 국제노동기구(ILO)가 분석한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이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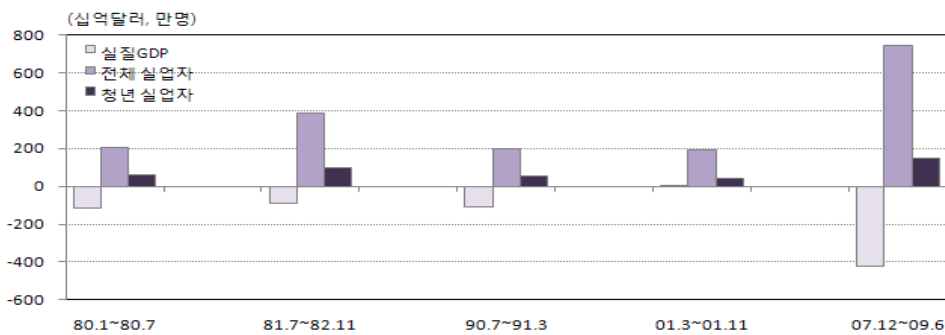
- OECD가 1997~2007년간 미국 등 20개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율과 GDP 성장률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민감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OECD

- 특히 이번 경기침체는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고 지속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미국의 청년실업 문제도 그만큼 심각하게 발전

경기침체기별 실질GDP와 실업자 증감¹⁾



주 : 1) 경기침체 종료 분기(월) 실질GDP(실업자) - 경기침체 시작 직전 분기(월) 실질GDP(실업자), 실질GDP는 연율치 기준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연기로 인한 취업기회 제약)

□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필요자금 규모*가 늘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금융위기 발생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가 급감하자 은퇴시기를 연기

* 미국 6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원을 주로 사회보장에 의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득원천

(달러)

	사회보장	민간 연금 ¹⁾	공적부문 연금	자산소득 ²⁾
▪ 금액(중간값)	15,012	8,052	17,400	2,254
▪ 수령인구 비중	89%	30%	15%	57%

주 : 1) 개인연금, 401(k) 등 기업연금 등 2) 이자, 배당 등
 자료 : Allianz

** 1946~1964년 기간에 출생한 세대로 65세에 달하는 2011년 이후 은퇴가 크게 늘어날 전망

○ 주택가격 하락*으로 45~54세가 가장인 가계는 2009년중 자산 가치가 2004년대비 31~35%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산

* S&P Case-Shiller(20대 도시 기준) 지수가 2008.3~09.10월중 실질 기준으로 약 14% 하락

베이비 붐 세대(45~54세 기준)의 가계당 자산변동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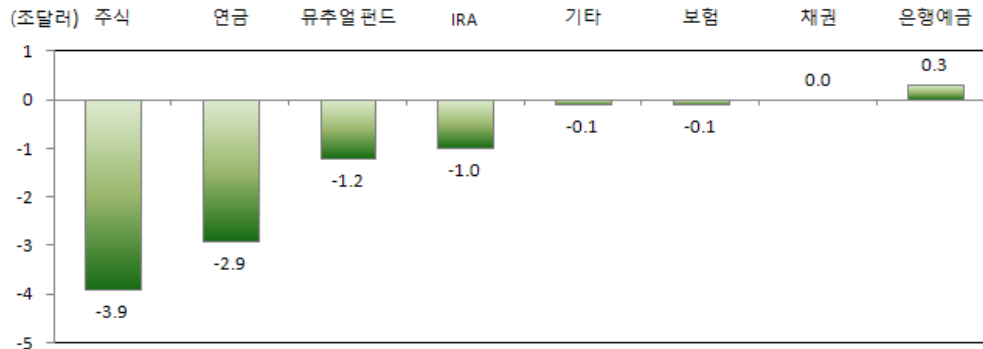
(달러, %)

	2004년	2009년 ²⁾	
		Case I	Case II
▪ 순자산(평균)	555,003	383,219 (-31.0)	358,970 (-35.3)

주 : 1) ()내는 2004년대비 증감률
 2) Case I은 2009년중 실질 주택가격이 10% 하락시, Case II는 20% 하락시
 자료 : CEPR(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2008.6)

— 금융자산도 추가하락에 따라 보유 주식, 연금 등을 중심으로 손실이 크게 확대

가계의 금융자산 손실 규모(2008~2009년중)



자료 : Allianz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연기로 54세 이하의 고용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비해 55세 이상은 오히려 100만명 증가(2007.12~09.12월중)

연령대별 고용 변동

연령대	2007.12월(A)	2009.12월(B)	B-A (만명)
▪ 16 ~ 24세	1,955.1	1,679.1	-276.0
▪ 25 ~ 54세	10,042.1	9,370.1	-672.0
▪ 55세 이상	2,621.8	2,722.1	100.3
(55 ~ 64세) ¹⁾	2,053.3	2,111.4	58.1
(65세 이상) ¹⁾	578.7	619.3	40.6

주 : 1) 미계절조정

자료 : 미 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 고용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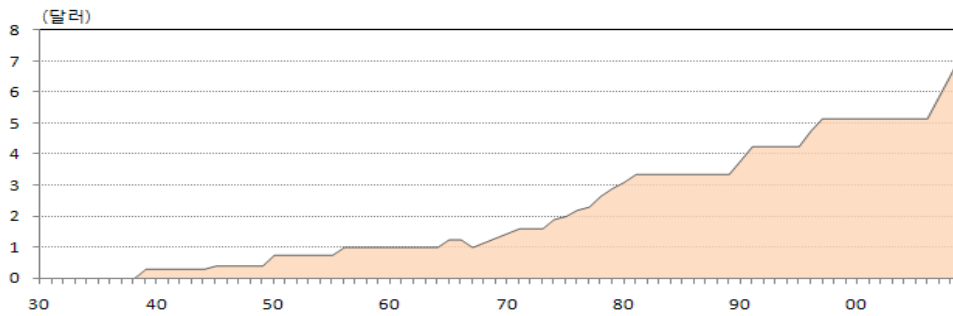
□ 일부 전문가들은 2007년 이후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실업을 촉진한 요인의 하나라고 주장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10대 등 청년계층과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Wall Street Journal(2009.10.3)은 매사추세츠 주의 최저임금이 1995년과 2008년 사이 88% 인상됨에 따라 10대 고용율이 1/3로 하락하였다고 분석. <붙임 2>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참조

o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시간당 5.15달러로 동결되었던 최저임금(연방정부 기준)이 2007년(5.85달러), 2008년(6.55달러), 2009년(7.25달러) 3년 연속 인상*

* 이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저임금은 중위값 임금대비 0.31로서 OECD 평균(0.46)에 비해 낮은 편(2007년 기준)

미국의 최저임금 추이



자료 : 미 노동부

- 이처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자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10대 등 청년층 고용을 감축
- o 특히 전통적으로 불법이민 10대의 일자리였던 패스트푸드 식당 등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에서의 고용이 위축

이민자의 업종별 고용 비중(2008년)

	건설업	음식·숙박	제조업	사업서비스	도소매	교육·건강 서비스
■ 합법이민자	8.9	8.8	12.5	11.4	12.5	21.1
■ 불법이민자	21.2	16.7	13.4	13.3	11.5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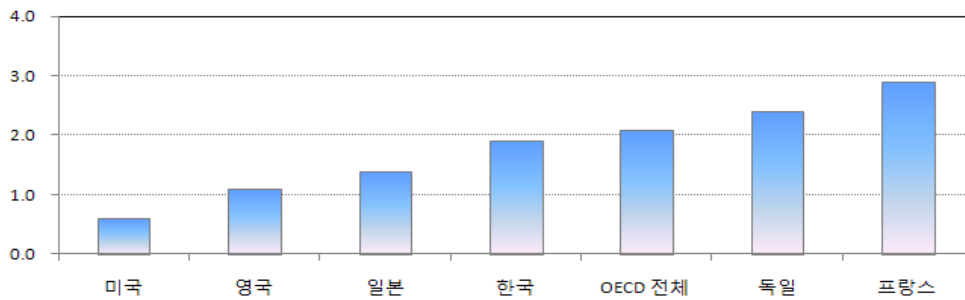
자료 : Pew Hispanic Center

(낮은 고용보호 수준 및 노동의 질)

□ 미국의 고용보호수준*이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경기침체가 도래하면 기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를 실시

* 고용보호수준(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은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와 관련된 절차와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0~6의 수치로 나타내며 동 수치가 클수록 고용보호수준이 높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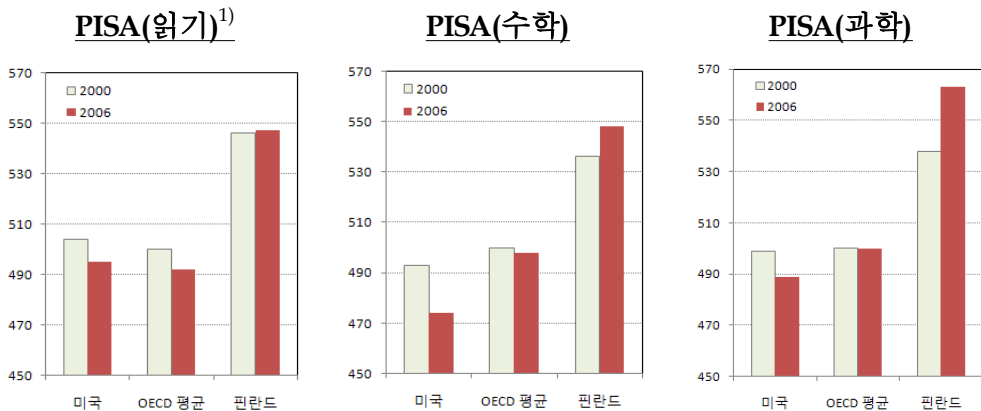
주요국 고용보호수준 비교(2008년 기준)



자료 : OECD

□ 또한 미국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 직업훈련 미비 등으로 경기변동에 취약

○ 수학, 과학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6년 기준) 점수가 OECD 평균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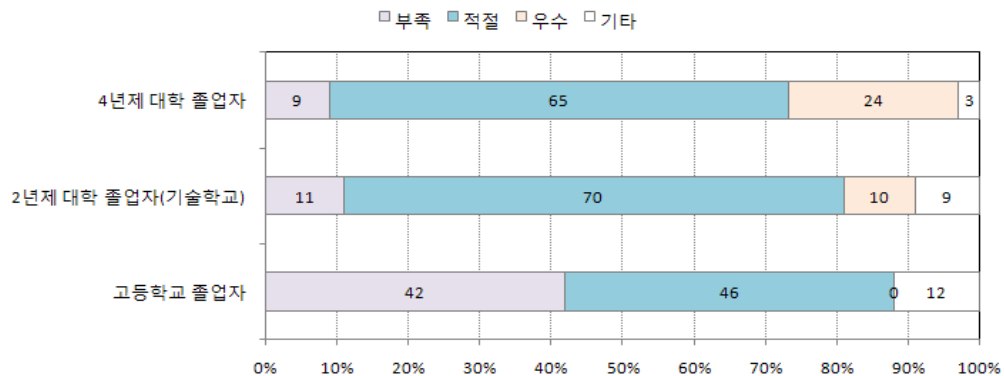


주 : 1) 미국의 2006년 읽기 성적은 2003년 기준,

자료 : OECD

-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on-the-job training)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당수가 현장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의 준비도 평가(2006년)



자료 : Conference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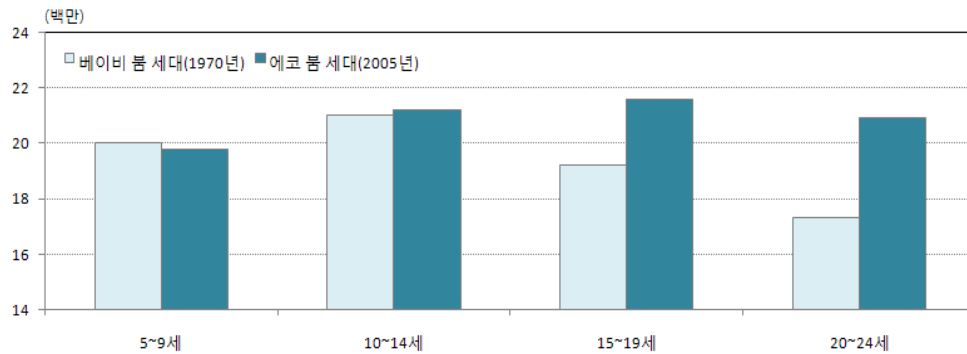
3. 정책 대응

- 과도한 청년실업은 사회불안 및 경제활력 저하 등을 초래
 -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실업은 당사자에게 '낙인(stigma)'을 찍어 취업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노동, 소비, 금융차입, 주택소유 등 제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소극적·보수적 태도를 유발할 가능성*
 - * Financial Times, *Fears of a generation being 'lost'*, 2009.11.24
 - 또한 보수화된 청년층이 경제활동의 주력세대가 되는 시점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후퇴, 노동의욕의 저하 등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

- 현재 청년층을 구성하고 있는 에코 붐 세대(echo boomer)*의 인구 규모가 베이비 붐 세대 인구규모를 능가하고 있어 실업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과급력이 커질 전망

*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로 1981년~2000년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

베이비 붐 세대 vs. 에코 붐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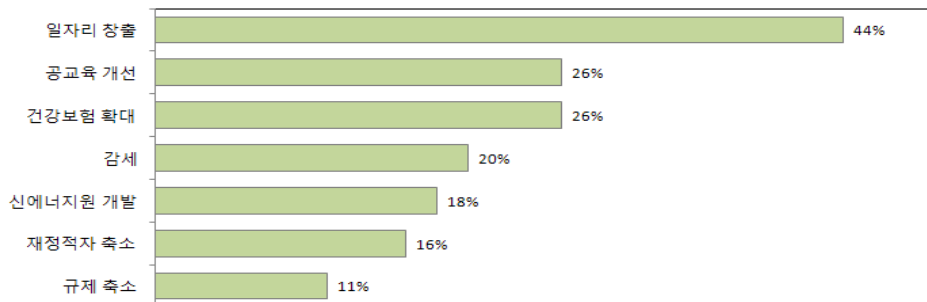
자료 :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 이처럼 청년층의 고실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활발히 논의

* <붙임 3> 주요국의 청년층 실업대책 참조

- 청년층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압도적 1위를 차지

청년층 관련 정책 우선순위 여론조사 결과



자료 : AFL-CIO(2009.7)

-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2.17)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직업훈련과 고용확대를 위해 15억달러를 지원하고 청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
 - 청년의 하계인턴(summer intern) 고용 등(Youth Activities)에 12억달러, Job Corps*에 2.5억달러,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대안학교에 등록된 청년층 지원(Youth Build)에 5천만달러를 지원
 - * 16~24세의 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과 직업훈련을 실시
 - 고용촉진제도(Work Opportunity Tax Credit)를 통해 비숙련 청년(disconnected youth)*과 하계근로 청년(Summer Youth Employee)**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1인당 1,200(하계근로 청년)~2,400달러의 세금을 공제
 - * 고용직전 6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고용경험이 없는 청년 또는 취업을 위한 기술이 부족한 청년
 - ** 16~17세로 5.1~9.15일 기간에 고용되는 청년
-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이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하계근로 청년의 경우에는 최소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한편 Job Corps 등 기존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실화 도모

주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산(백만달러)			참가 인원(명) ¹⁾
	FY2009	경기부양법	FY2010	
▪ Job Corps	1,683.9	250.0	1,701.4	63,343
▪ Workforce Investment Act Youth Activities	924.1	1,200.0	924.1	247,408
▪ Youth Build	70.0	50.0	114.5	4,340

주 : 1) Job Corps는 2007년, 기타는 2009년 기준
 자료 : 미 노동부

- 하원은 커뮤니티 칼리지, 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100억달러를 지원하는 청년층 재정지원법(Student Aid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을 의결(2009.9.17)
- 최근에는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자금 여유분을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
 - 오바마 대통령은 TARP자금 여유분중 약 2,000억달러를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 하원은 청년실업 해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창출법안(Jobs for Main Street Act of 2010)*을 승인(2009.12.16)
 - * TARP자금 여유분중 750억달러 등 총 1,550억달러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10대 후반을 대상으로 한 하계 청년고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에 5억달러,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College Work Study)에 3억달러를 책정
- 이와 함께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청년실업 관련 청문회(2009.10.1)를 열어 청년실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실업해소 방안을 모색
- 한편 OECD*는 미국의 청년실업 대책으로 실업급여 수령조건 완화, 고등학교내 직업교육 확대, 실업위험이 큰 청년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제시

* OECD, *Jobs for Youth : United States*, 2009.12.

<붙임 1>

국제노동기구(ILO)가 분석한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이유*

*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06

□ 국제노동기구(ILO)는 청년층 실업률이 중장년층에 비해 높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

① 후입선출(last-in, first-out)

- 고용주는 직무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호황시 가장 늦게 고용(last-in)하나, 청년층에 대한 투자도 많지 않고 주로 임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는 가장 먼저 해고(first-out)

② 직장탐색 경험의 부족

-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노동시장 정보와 직장탐색 경험이 부족

③ 빈번한 이직(shopping around)

- 청년층은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구하기까지 임시직 취업 등을 통해 빈번히 직장을 옮기는데, 이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

④ 이동성의 부족(lack of mobility)

- 청년층은 구직을 위해 이주할 정도의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지 못하여 주로 집 근처에서 구직활동을 펼침

⑤ 실업률 측정(measur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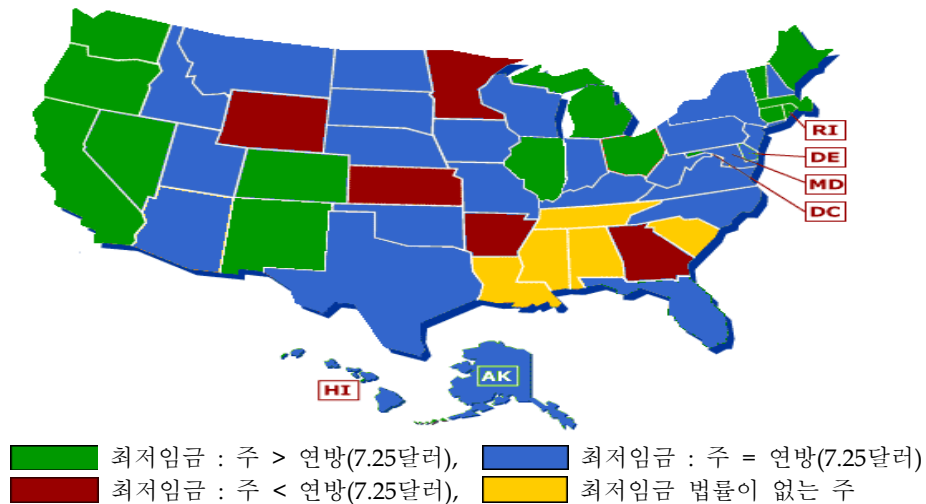
- 청년 실업자가 동일하더라도 학업지속, 구직단념 등으로 비경제활동 청년층이 증가함으로써 실업률이 상승

<붙임 2>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 1912년 매사추세츠州에서 제일 먼저 도입되었으며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 Act) 제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 현재 연방기준 최저임금은 비정기적으로 조정되며 물가에 연동되지 않음
 - 많은 주에서 연방정부와는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정
 - 2009.10월 현재 최저임금을 연방정부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 15개주, 같은 주는 뉴저지 등 26개주, 낮은 주는 캔사스 등 5개주(5개주는 최저임금제도 미시행)

최저임금 현황(2009. 10. 1일 현재)¹⁾



주 : 1) RI : Rhode Island, DE : Delaware, MD : Maryland
 DC : District of Columbia, HI : Hawaii, AK : Alaska

자료 : 미 노동부

- 현재 20세 이하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최초 90일간은 연방 최저임금(시간당 7.25달러)보다 낮은 시간당 4.25달러의 임금 적용이 가능

<붙임 3>

주요국의 청년층 실업대책

(영국)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뉴딜정책(New Deal for Young People)을 1998년 도입
 - 6개월 이상 실업급여 수령자에게 동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미참가자와 중도 탈락자에게는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을 줌
 - 청년층의 장기실업 탈출을 위해 민간기업 취업시 임금보조,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벨기에)

- 청년의무고용제도(Rosetta Plan)을 도입하여 5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 전체 피고용자의 3%를 청년층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 계약종료후 해고를 막기 위해 청년인력을 계속 고용할 것을 정식으로 문서화하는 기업에게는 해당청년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10%를 줄여주는 등 별도의 장기 지원책 마련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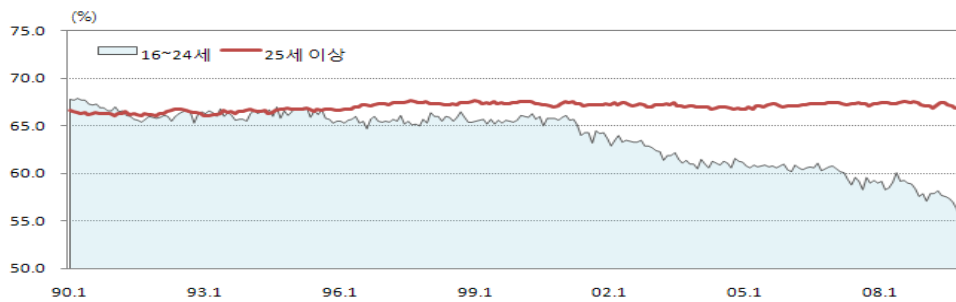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프리터(freeter)와 NEET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00년대초 이후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
 - 35세 미만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월 40,000엔을 보조하는 Youth Trial Employment 제도를 2001년 도입
 -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 기업의 직무훈련을 결합시켜 프리터와 실업청년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Japanese Dual System, 1년 이상 NEET로 지내는 청년을 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Independent Camp for Youth 등을 운영

<붙임 4>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둔화 배경

- 1990년대 초반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세 이상과 비슷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하락하며 양자간 격차가 확대
- 2007.12~2009.12월중 25~5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1.6% 감소에 그쳤으나 청년층은 6.5%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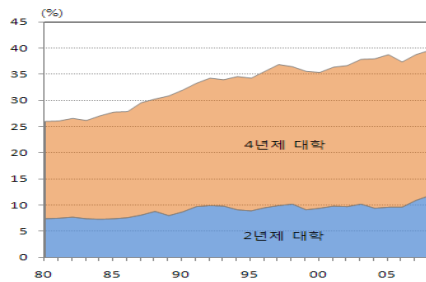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미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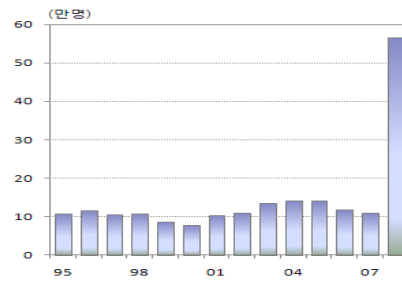
- 이는 청년층의 대학진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금융위기 이후 구직단념자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 학력간 임금격차 확대, 구직기회 감소 등에 따라 2009.10월 대학진학률(18~24세 기준)은 사상 최고 수준인 41%로 상승

대학 진학률



자료 : Pew Research Center

미국 청년층 구직단념자



자료 : OECD

- 이러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과장 박창현>

향후 중국의 물가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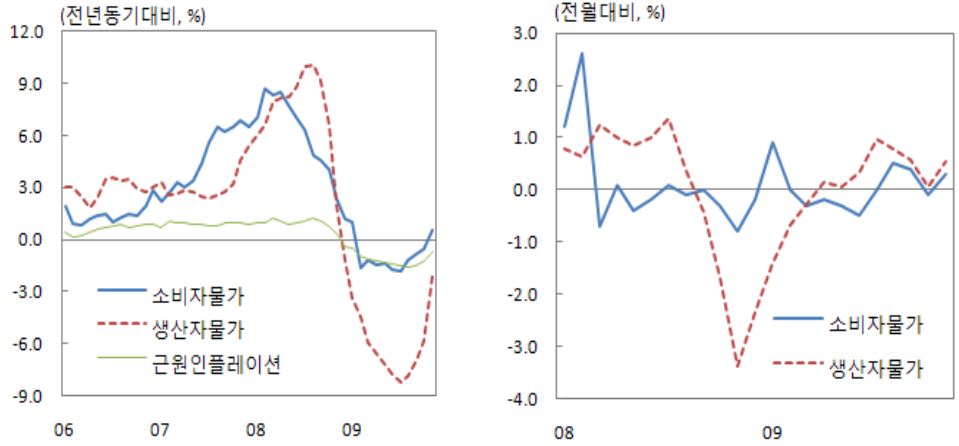
- ◆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1월 오름세로 돌아선 후 상승 폭이 커지자 중국정부와 인민은행은 경기부양 과정에서 급증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
- ◆ 그러나 충분한 생산능력에 힘입은 소폭의 플러스 GDP갭, 국제원자재가격의 상대적인 안정세, 위안화 절상 가능성, 중국정부의 소비재 확보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인플레이션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 따라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출구전략의 주된 고려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보다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자산버블 우려가 출구전략 시행을 가늠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1. 중국의 물가동향

- 2009년 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11월 들어 0.6%(전년동월대비, 이하 같음) 상승으로 반전
- 근원인플레이션*과 생산자물가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으나 하락폭은 크게 축소

* 소비자물가에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근원인플레이션 및 생산자물가



자료 CEIC

-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반전된 것은 주로 식료품가격의 오름세 확대에 기인
 - 지난해 11월 이후의 폭설과 한파에 따른 생산 및 운송 차질로 곡물, 채소 등 신선식품가격이 급등*
 - * 11월중 쌀 8.2%, 채소 20.8%
 - 비식료품가격은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거비용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완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추이

	(가중치)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물가	100.0	8.0 (3.1)	7.8 (-0.5)	5.3 (0.0)	2.5 (-1.3)	-0.6 (0.6)	-1.5 (-1.0)	-1.3 (0.9)	-0.5 (-0.1)	0.6 (0.3)
식료품	33.2	21.0	19.8	11.5	6.2	0.5	-1.0	0.3	1.6	3.2
비식료품	66.8	1.6	1.8	2.1	0.6	-1.0	-1.7	-2.0	-1.6	-0.7
(주거)	13.2	6.6	7.2	7.1	1.4	-2.9	-4.8	-5.4	-3.8	-1.2
(의료)	10.0	3.4	3.3	2.9	2.0	1.3	0.9	0.9	1.2	1.6
(오락문화)	14.2	-0.6	-1.0	-0.7	-0.4	-0.5	-0.8	-0.8	-0.7	-0.6

주 : 1) ()내는 전기대비
 자료 : CEIC

-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자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은 경기부양 과정에서 급증한 시중유동성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
 - 지난해 국무원 상무회의(09.10.21일)에서 인플레이션 억제가 주요 과제로 처음 제시된 이후
중앙경제공작회의(12.5~7일), 2010년 중국인민은행 업무회의(10.1.5~6일) 등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
 - 특히 최근 들어 물가오름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우려감이 확산
- ⇒ 인플레이션의 진행상황에 따라 중국정부의 출구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물가여건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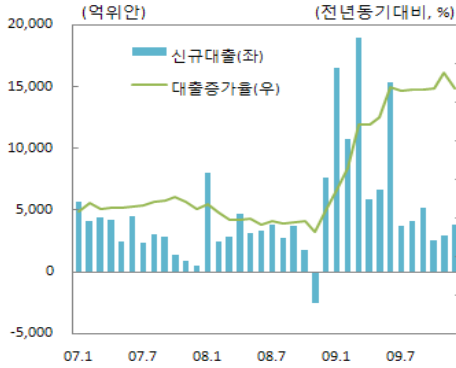
2. 2010년 물가여건 점검

㉠ 수요측 여건

(유동성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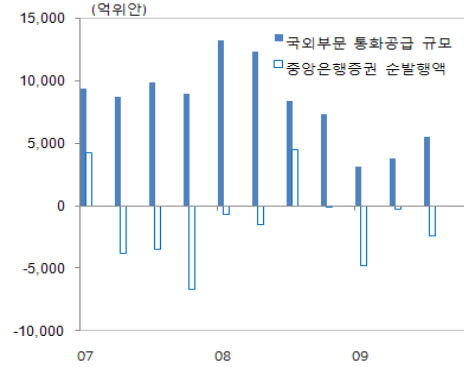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재정 통화정책에 힘입어 신규대출이 급증
 - 국유기업의 투자 수요(인프라 투자 등 중장기 투자)가 확대되면서 2009년 신규대출은 정부 목표(5조위안)의 2배에 가까운 9.6조위안 증가
 - 2009년 2/4분기부터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중심으로 해외자금 유입이 늘어났으나
중국인민은행이 이를 전액 흡수하지 않음에 따라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도 다시 증가

은행 대출 추이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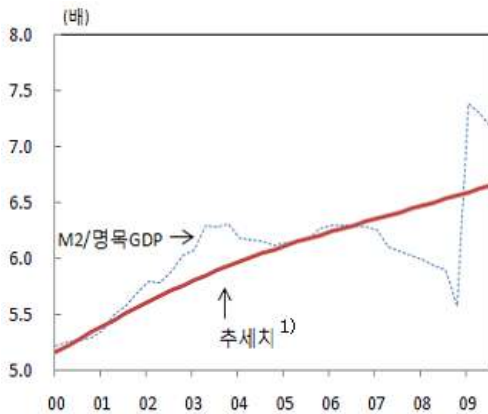
**국외부문 통화공급 규모¹⁾ 및
중앙은행증권 순발행액**



주 : 1) 중국 예금취급기관 개관표상의 순국외자산 증감

- 이에 따라 2009년중 M2 증가율(평잔기준)은 26.5%로 중국인민은행의 목표치 17%를 대폭 상회
- M2/명목GDP 비율도 장기추세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시중유동성이 과잉상태에 있음을 시사
- 중국에서 유동성 상황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11개월 시차상관계수 0.57)

M2/명목GDP 비율 추이



주 : 1) 추세치는 HP필터링

통화량(M2)과 소비자물가



주 : 1) t월 M2증가율과 t-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응

(GDP갭)

□ 금년중 중국경제가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나 여유생산능력이 충분하여 이를 소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주요기관 2010년 성장률 전망 : IMF 9.0%(09.10월), OECD 10.2%(09.11월), 중국사회과학원 9.0%(09.10월), 7개 투자은행평균 9.8%(10.1월)

○ 철강 등 주요 산업은 그 동안의 투자확대로 생산능력이 국내수요를 크게 상회

주요 산업의 설비가동률(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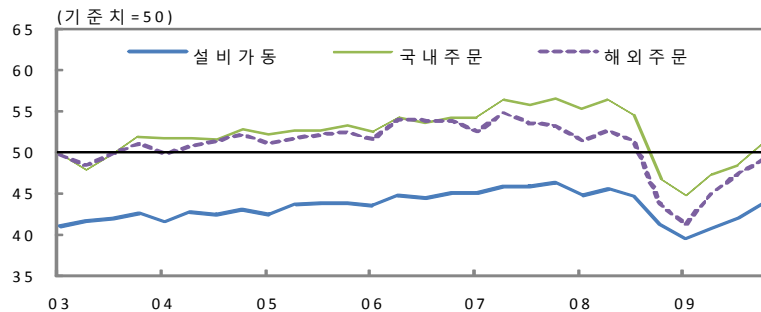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메탄올	폴리실리콘 (태양전자재료)	풍력발전	
76	75	73	88	40	20	50	

자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기업의 설비가동 정도를 나타내는 설비가동 확산지수(Production Capacity Diffusion Index)*가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 $DI = \frac{(\text{설비부족 응답 기업수} - \text{설비과잉 응답 기업수})}{\text{전체 응답 업체수}} \times 100 + 50$
 (대상기업수는 5,000개 기업이며, 50을 하회할수록 설비과잉응답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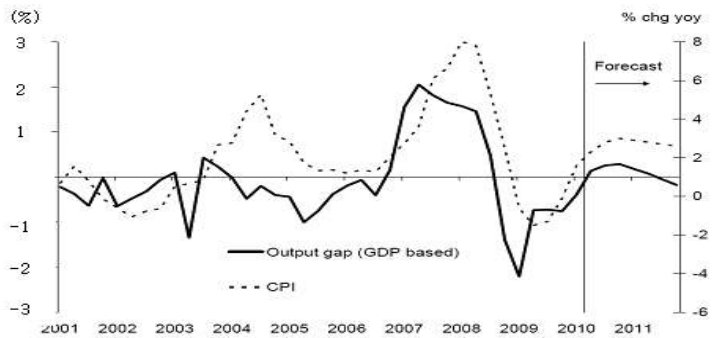
주문 및 설비가동 확산지수



자료 : CEIC

-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간 GDP갭이 수요회복에 힘입어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하겠지만
 그 폭은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GDP갭¹⁾과 소비자물가



주 : 1) $[(\text{실제GDP} - \text{잠재GDP}) / \text{잠재GDP}] \times 100$
 자료 : Goldman Sachs(Asia Economics Flash, 2009.12.3)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은 과잉유동성, 자산가격 상승 등을 배경으로 지난해 1/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한 뒤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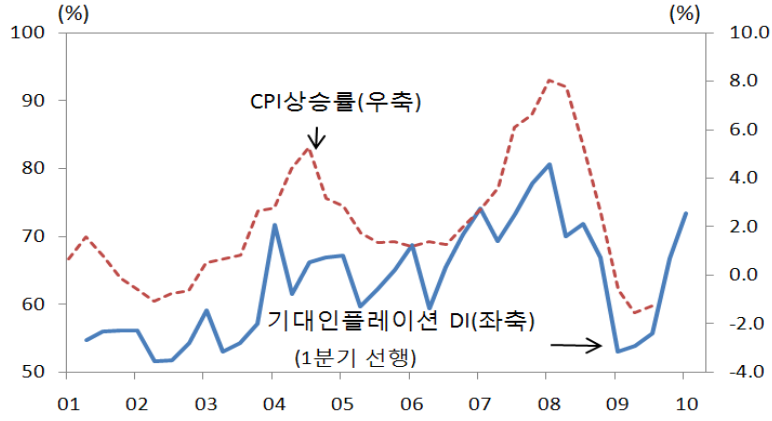
* 중국인민은행 기대인플레이션 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체로 1~2분기 정도 선행(2001.1/4~09.4/4분기중 시차상관계수 1분기 0.82, 2분기 0.79)

- 금년 1/4분기에도 한파에 따른 식료품·연료가격 상승, 전기·수도·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09.11.20), 수도 요금 인상(09.12.1, 베이징시)

** Merrill Lynch(Rising inflation expectation, 10.1.14)

도시지역 예금자 기대인플레이션 DI



자료 : 중국인민은행

② 공급측 여건

(국제원자재가격)

- 2000년대 후반 들어 CRB선물가격지수* 상승률과 비식료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관도가 높아지고 시차도 4개월 이상 단축

* 미국 CRB(Comodity Reserch Bear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등 21개 품목을 지수화하여 만든 국제원자재가격 동향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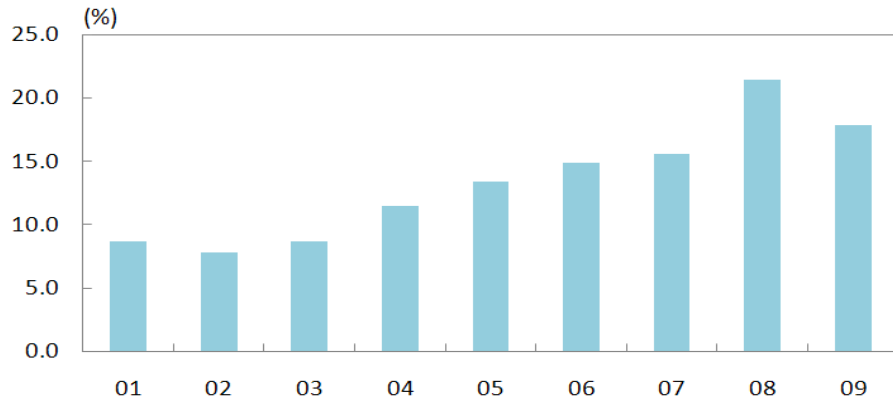
비식료품 가격과 CRB지수 상승률간 시차상관계수¹⁾

기간	t+1	t+2	t+3	t+4	t+5	t+6
2001.1~04.12	0.005	0.130	0.247	0.374	0.484	0.581
2005.1~09.11	0.888	0.917	0.891	0.832	0.736	0.617

주 : 1) 기간중 t월 비식료품 가격과 t+i월 CRB지수 상승률 기준

- o 이는 중국의 국제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었기 때문

전체 수입액중 국제원자재¹⁾ 수입 비중²⁾



주 : 1) 철광석, 망간, 구리, 크롬, 알루미늄, 석탄, 원유, 정제석유, 가스류

2) 2009년은 1~11월

자료 : CEIC

□ 2010년에는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나 그 속도는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고수준, 투기자금 규제 등이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주요 예측기관의 국제유가 전망(Brent油 기준)

(기간평균, 달러/배럴)

	2008	2009	연간	2010 ^{e)}				2011 ^{e)}		
				1/4	2/4	3/4	4/4			
CERA 12.11일		97.1	62.0	Base 시나리오	67.1	68.0	64.3	66.8	69.1	75.7
				저유가 ¹⁾	48.0	53.5	49.0	43.5	46.0	46.0
				고유가 ²⁾	90.4	88.4	89.4	90.4	93.4	106.5
CGES 12.21일				Base 시나리오	64.9	70.3	67.1	62.6
				저유가 ¹⁾	62.2	70.3	66.4	59.5
				고유가 ²⁾	79.1	74.9	76.8	79.4

주 : 1) 수요감소 2) 산유국 감산 및 공급 감소

- 기타원자재가격은 10~20%대의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겠으나 절대가격 수준은 2008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주요 금속 가격 전망

(기간평균, 달러/톤)

	2008	2009	2010 ^{e)}	2011 ^{e)}
■ 구리	6,959 (-2.5)	5,178 (-25.6)	6,550 (26.5)	7,125 (8.8)
■ 알루미늄	2,576 (-2.4)	1,671 (-35.1)	2,000 (19.7)	2,226 (11.3)
■ 니켈	21,058 (-43.2)	14,712 (-30.1)	18,188 (23.6)	20,944 (15.2)
■ 아연	1,880 (-42.3)	1,662 (-11.6)	2,150 (29.4)	2,313 (7.6)

주 : 1) ()내는 전년대비 상승률(%),
자료 : Bloomberg(1.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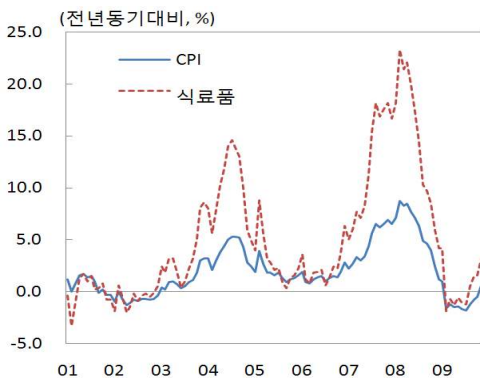
(식료품가격)

- 식료품가격은 변동성이 크고*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중치 33.2%)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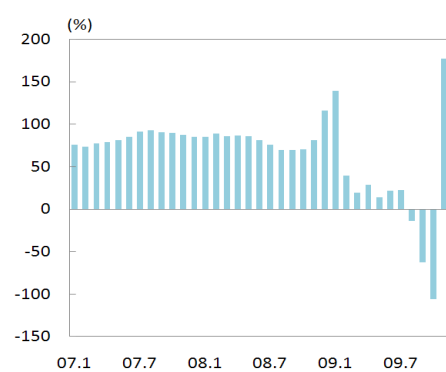
* 2001~09.11월중 소비자물가 표준편차 2.6, 식료품가격 표준편차 6.4

- 2000년대(2001~09.11월) 소비자물가 변동의 61%는 식료품가격 변동으로 설명 가능

소비자물가 및 식료품가격



소비자물가중 식료품가격 기여율



자료 : CEIC

- 중국의 경우 특히 식료품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도시화 진전, 소득 향상 등에 따라 곡물 등 특정 품목의 수급장애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

* <참고> 중국 식료품가격 변동성 확대 배경 참조

- 곡물의 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도시화 진전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생산은 정체되면서 가격상승세가 만성화
- 중국 도시가계 식료품지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은 단기적 생산량 변동에 크게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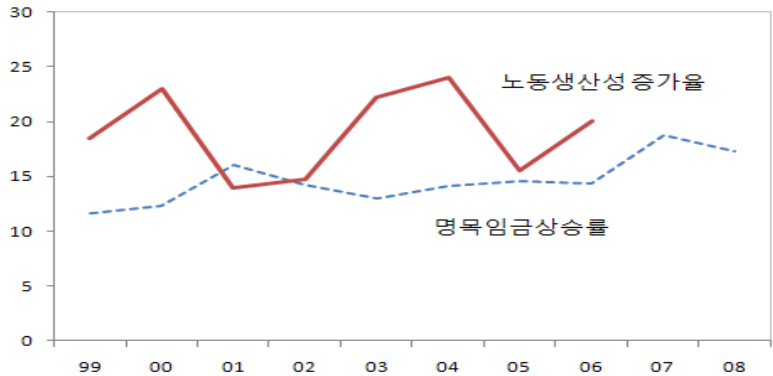
* 돼지 청이병(blue-ear disease, 青耳病) 확산으로 2007년 급등했던 돼지고기 가격은 공급부족 해소와 기저효과로 2008년 10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 한편 2010년중 식료품가격은 예상치 못한 기후변동, 전염병 등의 특이요인만 없다면 중국정부의 수급대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될 전망
- 중국정부의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중국의 곡물 재고비율(재고/소비)이 약 45%(2009.1/4분기 기준)까지 상승(UN 식량농업기구 권장 수준 17~18%)
-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는 2010년 수요에 대비하여 돼지고기, 식용유 등도 충분히 비축해 두고 있다고 발표(12.14일)

(임금)

- 중국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10% 중반대로 높은 편이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

임금 및 노동생산성¹⁾ 추이



주 : 1) 광공업생산 부가가치액/근로자수
 자료 : CEIC

□ 2010년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임금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생산성 증가율이 뒷받침될 경우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데는 한계

○ 광저우시는 근로자 최저임금인상률을 금융위기전인 2008년 상반기 평균(18.0%)보다 낮고, 2009년 2/4분기 이후 평균(12.6%)보다는 높은 16% 수준으로 검토*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2010.1.4)

○ 한편 농민공(농촌출신 도시 일용직 근로자) 등 도시유입 대기 노동력이 풍부하여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

* 금융위기 이후 농민공 등 실직자수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650만명(농민공 450만명 포함), 중국사회과학원은 2,300만명으로 추정(09.9월)

도시지역 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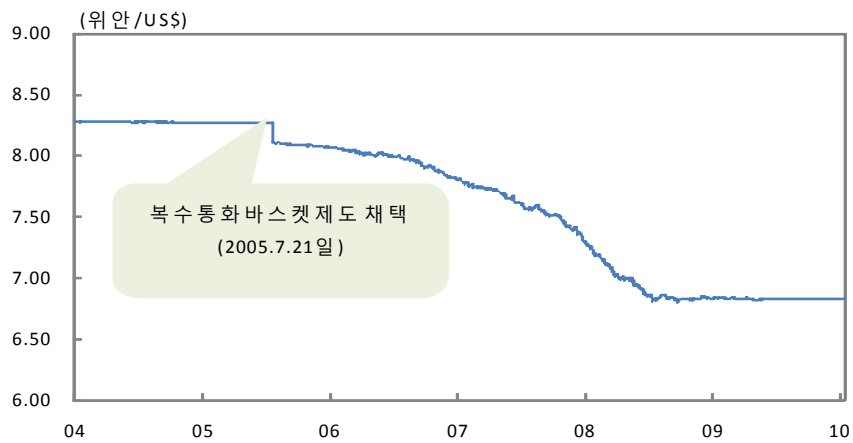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18.7	19.2	16.7	19.0	15.0	13.4	12.4	12.8

(위안화 환율)

- 중국은 2005년 7월 이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했으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안화 환율을 달러화에 페그하여 운영
- 2008년 9월 이후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6.83위안으로 사실상 고정됨에 따라 환율은 물가에 중립적으로 작용

위안화 환율 추이



자료 : CEIC

- 그러나 중국의 수출 회복과 달러화 약세기조 등을 배경으로 어느 정도의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거센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타남
- 중국 사회과학원 장빈(張斌) 연구원은 위안화 환율을 10% 정도 절상하여도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중·미간 무역분쟁을 완화하고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잠재워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는 등 중국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1.6일)

* '중국 거시경제 정세 심포지엄' 베이징, 2010.1.6, 중국 농업은행,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공동주최

- 주요 투자은행들도 2010년중 위안화가 약 3% 평가 절상될 것으로 전망(2009.12.31일 현재 위안화 환율은 6.83위안/미달러)

주요 투자은행 위안화/미달러 환율 전망

		(위안/US\$)			
	(전망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Goldman Sachs	(09.12.30일)	6.83	6.83	-	6.83
Standard Chartered	(09.12.18일)	6.83	6.82	6.78	6.70
HSBC	(09.12.15일)	6.80	6.80	6.73	6.66
Deutsche Bank	(09.12.18일)	6.83	6.75	-	6.63
BNP Paribas	(10. 1. 4일)	6.83	6.83	6.72	6.62
Citi	(09.12.24일)	6.75	6.70	6.65	6.62
JP Morgan	(09.12.30일)	6.75	6.70	6.65	6.58
Morgan Stanley	(09.12.17일)	6.80	6.68	6.61	6.55
Barclays Capital	(09.12.21일)	6.82	6.75	-	6.50
Bank of America	(10. 1. 4일)	6.72	6.60	6.55	6.50
UBS	(10. 1. 4일)	6.80	-	-	6.50
Credit Suisse	(09.12.23일)	6.85	-	-	6.50
평균		6.80	6.75	6.67	6.60

3. 종합평가

- 수요·공급면에서의 물가여건을 점검한 결과 인플레이션 재연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판단

2010년 주요 물가여건 평가

수요측면	과잉유동성 ↑	경기상황(GDP갭 등) ·	기대인플레이션 ▲
공급측면	국제원자재가격 ·	중국내 식료품가격 ·	임금 · 환율 ▼

- 대부분의 주요 기관들도 2010년중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3%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의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전망일자	2010 ^{e)}	2011 ^{e)}
중국사회과학원	(09.12.07)	2.0~3.0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09.12.13)	3.0~3.5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09.11.27)	3.0	—
World Bank	(09.11월)	2.0	—
ADB	(09. 9월)	3.0	—
9개 IB 평균	(09. 1월)	3.0	3.1

⇒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문제는 중국이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 주된 고려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다만 텐진 등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자산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의 여부가 향후 출구 전략 시행을 가능할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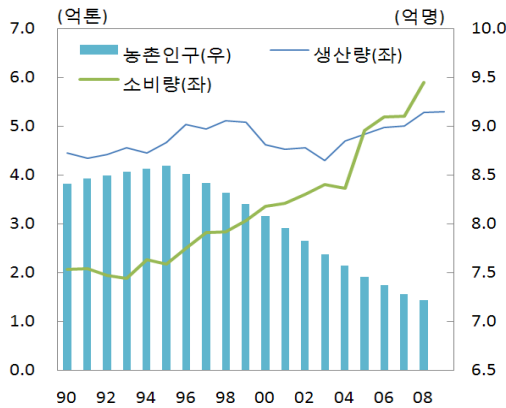
<참 고>

중국 식료품가격 변동성 확대 배경

- 식료품가격 변동성 확대는 급속한 도시화 진전 및 소득 향상 등에 따른 곡물 등 특정 품목의 수급장애가 확대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곡물은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도시화 진전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생산은 정체되면서 가격상승세가 만성화
 - 또한 중국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가지원을 위해 정부의 쌀수매 최저가를 꾸준히 인상*

* 2009년에는 16.8% 인상(2009년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안, 2009.7.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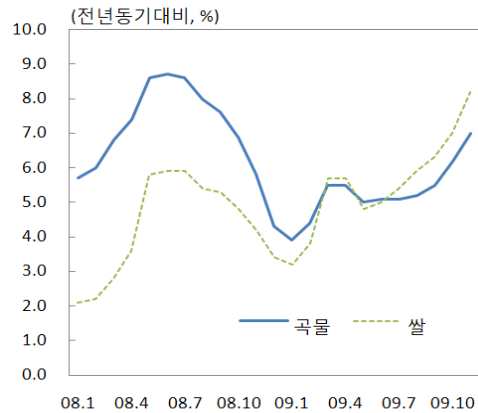
농촌인구 및 곡물 생산·소비¹⁾



주 : 1) 1인당 판매량 × 총인구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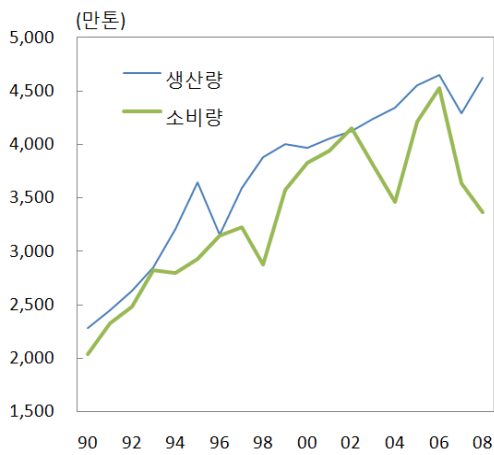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중 곡물가격 등락률



- 중국 도시가계 식료품지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은 단기적 생산량 변동에 크게 영향
 - 2007년 급등*했던 돼지고기 가격은 공급부족 해소와 기저효과로 2008년 10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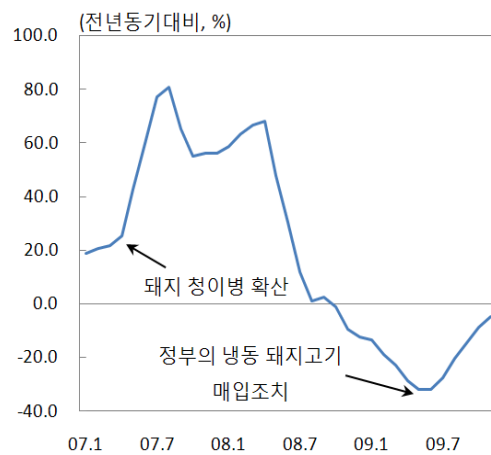
- * 돼지 청이병(blue-ear disease, 靑耳病) 확산에 따른 돼지 집단폐사에 기인
- 정부의 냉동 돼지고기 매입 조치*로 2009년 6월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
- * 돼지 가격 과도하락을 막기 위한 조정안, 6.13일

돼지고기 생산·소비¹⁾ 추이



주 : 1) 1인당 판매량 × 총인구
 자료 : CEIC

소비자물가중 돼지고기가격 등락률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과장 박동준, 조사역 박진호>

주요국의 금융·경제

【미 국】

▶ 재무부, 금융위기책임세 부과 방안 발표

미 재무부는 TARP 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1/14)

-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의 근거법인 긴급경제안정화법(EESA, 2008.10월)에서는 TARP 집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까지 TARP 손실분 전액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전할 수 있도록 명시

— 부과대상은 금융위기중 정부의 긴급지원조치를 받았던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

— 부과기간은 TARP 손실분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

* 재무부는 1,170억달러로 예상되는 TARP 손실분을 향후 12년에 걸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책임세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해 부채에 연동*하여 산정

* 연간 금융기관 부채(= 총자산 - Tier 1 자본 - FDIC 보증 예금)의 약 15bp를 책임세로 부과

- 한편 월가는 TARP 자금을 지원받은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TARP 손실의 대부분이 자동차 회사(GM, Chrysler)와 국책 모기지업체(Fannie Mae, Freddie Mac)에 기인한다는 점을 들어 동 조치에 크게 반발

* 금융기관들은 총 3,146억달러의 TARP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1,619억달러를 상환. 한편 주요 대형 금융기관들의 경우 Citigroup을 제외하고 모두 원리금을 상환

▶ 연준 Beige Book, 완만한 경기회복세 확산

미 연준은 10~11월중 지역경제동향보고서(Beige Book)*를 통해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1/13)

*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관할지역별로 최근 경제동향을 조사하여 통상 FOMC 회의 개최 2주전 수요일에 발표

(소비지출)

- 지난해 연말특수가 2007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2008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
 -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필품 위주로 구매하고 소매업체들도 재고수준을 여전히 낮게 유지
 - 자동차 판매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연말 재고처분으로 다소 증가

(제조업)

- 제조업 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다만 설비투자 확대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

(금융업)

- 대부분 지역에서 모기지를 제외하고 대출수요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일부 지역(New York, Philadelphia, Cleveland 등)에서는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대출의 질(credit quality)이 계속 악화

(부동산 및 건설업)

-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연장(2009.11월말 → 2010.4월말)된 데 힘입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
- 다만 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약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건축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
-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사무실의 공실률 상승과 임대료 하락이 지속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부진 지속

(고용, 임금 및 물가)

- 고용사정은 일부 지역에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임금상승 압력도 미미한 수준
- 소비자물가는 금속 등 일부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안정

□ 12월 산업생산 전월 수준 증가세 지속(1/15)

- 11월 0.6% → 12월 0.6%(전월대비)로 전월과 같은 수준의 증가세 지속

(전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3/4	4/4	1/4	2/4	3/4	11월	12월
산업생산	1.5	-2.2	-2.3	-3.4	-5.1	-2.7	1.3	0.6	0.6
제조업가동률	79.0	75.1	74.6	70.9	66.7	65.4	66.9	68.5	68.6

자료 : 미 연준

□ 11월 상품·서비스수지 적자 확대(1/12)

-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10월 -332억달러 → 11월 -364억달러로 적자 확대

(억달러)

	2007	2008			2009				
		연간	4/4	1/4	2/4	3/4	10월	11월	
상품·서비스수지	-7,014	-6,959	-1,445	-924	-812	-974	-332	-364	
수출	16,432	18,266	4,142	3,722	3,714	3,925	1,370	1,382	
수입	23,446	25,225	5,656	4,646	4,508	4,899	1,702	1,746	

자료 :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

□ 12월 소매판매 감소 반전(1/14)

○ 전자제품(2.8% → -2.6%) 등을 중심으로 11월 1.8% → 12월 -0.3% (전월대비)로 3개월 만에 감소 반전

— 자동차 제외시에도 1.9% → -0.2%로 감소 반전

(전기대비, %)

	2008	2009						11월	12월
		연간	1/4	2/4	3/4	4/4			
소매판매	-0.8	-6.0	-1.0	-0.3	1.6	1.7	1.8	-0.3	
자동차제외	2.7	-4.9	-1.1	-0.3	0.8	1.9	1.9	-0.2	

자료 :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

□ 1월 둘째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 증가(1/14)

○ 44.4만명으로 전주대비 1.1만명 증가

(만명)

	2008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1월1주	1월2주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 ¹⁾	41.9	57.3	61.5	62.7	56.0	49.1	43.3	44.4

주 : 1) 주 이외 수치는 해당 기간의 주별 청구자수의 평균
자료 : 미국 노동부

【일 본】

▶ 정부, 주택에코포인트제도 실시

일본정부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 건설자재 구입에 활용이 가능한 주택에코포인트제도를 실시(1/18)

○ 주택에코포인트제도 관련 예산 1,000억엔은 2차 보정예산안에 이미 반영

— 신축에는 2009.12.8부터, 개축(창의 단열개수나 외벽, 천정 또는 마루의 단열재 시공)에는 2010.1.1부터 에코포인트를 부여

— 주택에코포인트는 기존 가전에코포인트 구매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더하여 일반주택 공사 자재 및 서비스 구입 등에도 활용 가능

* 친환경제품 및 상품권, 선불카드(환경 및 공공 교통기관 이용 등에 한정), 지역 특산품, 환경기부 등

주택에코포인트 부여 내역

		(포인트)
신 축		1호당 300,000
		상한 300,000
개 축	외 벽	100,000
	마 루	50,000
	천 장	30,000
	이중창 설치	18,000~17,000
	유리 교환	7,000~2,000

자료 : 국토교통성

- 전문가들은 동 제도가 침체된 주택시장의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하며 다른 환경대책*과 달리 외국과의 통상마찰 위험도 거의 없다고 지적

* 친환경자동차(에코카) 보조금 정책의 경우 미국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대일 판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1/13)

□ 10월 민간기계수주 감소세 확대(1/14)

- 제조업(25.4% → -18.2%)의 부진으로 9월 -4.5% → 11월 -11.3%(전월 대비)로 감소세 확대

(전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민간기계수주	-4.0	-6.0	0.8	-1.5	-8.9	-15.1	-9.9	-4.9	-0.9	-4.5	-11.3

자료 : 일본 내각부

□ 12월 기업물가 내림세 둔화(1/14)

- 석유제품(-13.5% → 0.5%), 비철금속(1.5% → 9.1%) 등의 상승으로 11월 -5.0% → 12월 -3.9%(전년동월대비)로 내림세 둔화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1월	12월
기업물가	1.8	4.6	3.5	4.9	7.3	2.6	-1.8	-5.4	-8.3	-5.0	-3.9

자료 : 일본은행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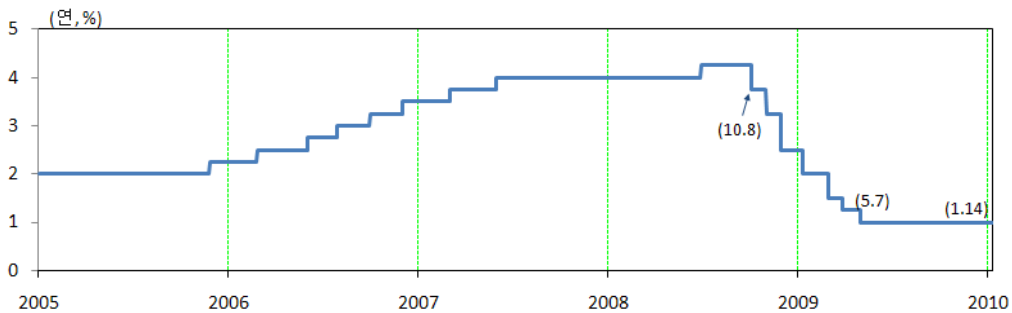
▶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1.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1/14)

* ECB는 2009. 6월 이후 8개월 연속 동결

-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소비자물가가 중기 목표치(2.0%)를 하회하는 가운데 향후 경기회복속도가 완만하고 회복과정도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

ECB의 기준금리 추이¹⁾



주 : 1) ()내는 기준금리 조정일자

- 다수 전망기관들은 ECB가 금년 3·4분기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

주요 전망기관의 ECB 기준금리 전망¹⁾

기준금리(%)	(전망기관수)						
	2010. 1/4	2/4	3/4	4/4	2011. 1/4	2/4	3/4
1.00(현수준)	79	75	49	24	5	2	2
1.25	1	5	20	14	12	3	1
1.50 이상	-	-	11	40	40	43	42
계	80	80	80	78	57	48	45

주 : 1) Reuters가 1. 5일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 독일, 2009년 경제성장률 -5.0% 기록

독일연방통계청은 2009년중 실질GDP 성장률(잠정치)이 -5.0%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1/13)

* 연간 성장률을 4/4분기 성장률(2. 12일 발표예정)보다 먼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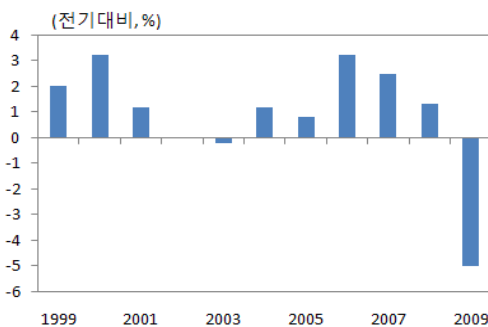
- 이와 같이 2003년(-0.2%)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수출(2008년 2.9% → 2009년 -14.7%) 및 고정투자(3.1% → -8.6%)가 크게 부진한 데 주로 기인

— 특히 건설투자(2.6% → -0.7%)는 상대적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기계 및 설비 투자(3.3% → -20.0%)가 크게 감소

- 반면 민간소비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신차보조금 지원 등에 힘입어 전년과 동일한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정부지출도 증가세가 소폭 확대(2.1% → 2.7%)

— 이에 따라 정부지출 및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5%p 및 0.2%p 기록

독일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

수요부문별 추이

	(전기대비, %, %p)			
	2006	2007	2008	2009 ¹⁾
실질GDP	3.2	2.5	1.3	-5.0
(민간소비)	1.3	-0.3	0.4	0.4 (0.2)
(정부지출)	1.0	1.7	2.1	2.7 (0.5)
(고정투자)	7.8	5.0	3.1	-8.6 (-1.6)
(수 출)	13.0	7.5	2.9	-14.7 (-3.4) ²⁾
(수 입)	11.9	4.8	4.3	-8.9

주 : 1) ()내는 기여도 2) 순수출기여도

(유로지역)

□ 11월 산업생산 증가 전환(1/14)

- 내구성 소비재(-1.2% → 1.8%) 등을 중심으로 10월 -0.3% → 11월 1.0%(전월대비)로 증가 전환

(전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3.8	-1.8	-8.1	-8.5	-1.2	2.3	0.3	-0.3	1.0

자료 : EU 통계청

□ 12월 소비자물가(확정치) 상승폭 확대(1/15)

- 운송비(1.4% → 3.5%) 등을 중심으로 11월 0.5% → 12월 0.9%(전년 동월대비)로 상승폭 확대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3.3	0.3	1.0	0.2	-0.4	0.4	-0.1	0.5	0.9

자료 : EU 통계청

□ 11월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1/15)

- 수출 감소(1,085억유로 → 1,080억유로)에 주로 기인하여 10월 47억유로 → 11월 39억유로로 흑자폭 축소

(억유로)

	2007	2008			2009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상품수지	160	-431	-73	-104	35	87	38	47	39

자료 : EU 통계청

(독 일)

□ 12월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1/14)

- 에너지품목 등을 중심으로 11월 0.4% → 12월 0.9%(전년동월대비)로 상승폭 확대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2.6	0.3	0.8	0.3	-0.2	0.4	0.0	0.4	0.9

자료 : 독일 통계청

(프랑스)

□ 11월 산업생산 증가 반전(1/11)

- 자동차(-6.1% → 8.5%) 등의 호조로 10월 -0.6% → 11월 1.1%(전월대비)로 증가 반전

(전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1.4	-2.7	-6.5	-7.1	-0.8	3.0	-1.2	-0.6	1.1

자료 : 프랑스 통계청

□ 12월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1/13)

- 에너지품목 상승 전환(-4.2% → 1.1%) 등의 영향으로 11월 0.4% → 12월 0.9%(전년동월대비)로 상승폭 확대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2.8	0.1	0.6	-0.2	-0.4	0.4	-0.2	0.4	0.9

자료 : 프랑스 통계청

(영 국)

□ 11월 상품수지 적자폭 축소(1/12)

- 수입 감소(272억파운드 → 270억파운드)로 10월 -70억파운드 → 11월 -68억파운드로 적자폭 축소

(억파운드)

	2007	2008			2009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상품수지	-898	-934	-223	-209	-197	-197	-69	-70	-68

자료 : 영국 통계청

【중 국】

▶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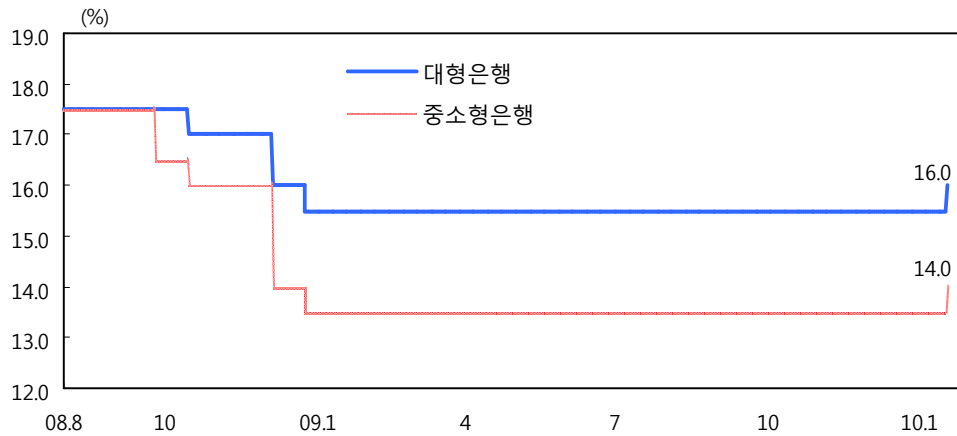
중국인민은행은 1.18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50bp 인상한다고 발표(1/12)

- 대형은행*은 15.5%에서 16.0%로, 중소형은행은 13.5%에서 14.0%로 각각 인상

*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 2008.12월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각각 16.0% → 15.5%, 14.0% → 13.5%)한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

지급준비율 추이



자료 : CEIC

- 시장에서는 은행대출 증가와 핫머니 유입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및 자산시장 거품*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분석

* 12월중 중국의 70개 도시 부동산가격은 전년동월대비 7.8% 상승하며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 다만 금융기관의 초과 기준을 수준, 유동성 흡수 규모 등에 비추어 대체로 동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2009.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초과 기준율이 2.06%로 이번 기준을 인상폭의 4배 수준
 - 이번 조치를 통해 2,000~3,000억위안 정도의 유동성이 흡수될 것으로 보이지만 흡수 필요 규모로 추정되는 7,000~8,000억위안 수준에는 크게 미달
- 한편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중국인민은행의 시중유동성 축소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몇차례에 걸쳐 기준율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
 - * 리징(李晶) JP Morgan 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기준율이 세차례 더 인상되어 역대 최고치인 17.5%에 달할 것으로 전망(1.13일)
 - 또한 중국인민은행이 예상보다 앞서 기준율을 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도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

□ 12월 수출 증가 전환(1/10)

- 11월 -1.2% → 12월 17.7%(전년동월대비)로 증가 전환하였으며 수입은 11월 26.7% → 12월 55.9%로 증가세 큰 폭 확대
 - 무역수지 흑자는 184억달러로 전월(191억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3/4	4/4	1/4	2/4	3/4	4/4	11월	12월
수출	25.7	17.2	23.3	4.4	-19.8	-23.5	-20.6	0.2	-1.2	17.7
수입	20.8	18.5	25.7	-9.1	-30.9	-20.3	-11.7	22.6	26.7	55.9
무역수지 ¹⁾	2,622	2,955	848	1151	622	340	387	615	191	184

주 : 1) 억달러
자료 : 중국 상무부

【주요 신흥시장국】

- 멕시코, 11월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10월 -5.5% → -1.0%, 1/13)
- 브라질, 11월 소매판매 증가세 소폭 확대(10월 8.6% → 8.7%, 1/14)
- 아르헨티나, 12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확대(11월 7.1% → 7.7%, 1/16)
- 말레이시아, 11월 산업생산 감소 전환(10월 0.9% → -1.3%, 1/11)
- 필리핀, 11월 수출 증가 전환(10월 -8.0% → 5.1%, 1/12)
- 인도, 11월 산업생산 증가세 소폭 확대(10월 10.3% → 11.7%, 1/12)

국제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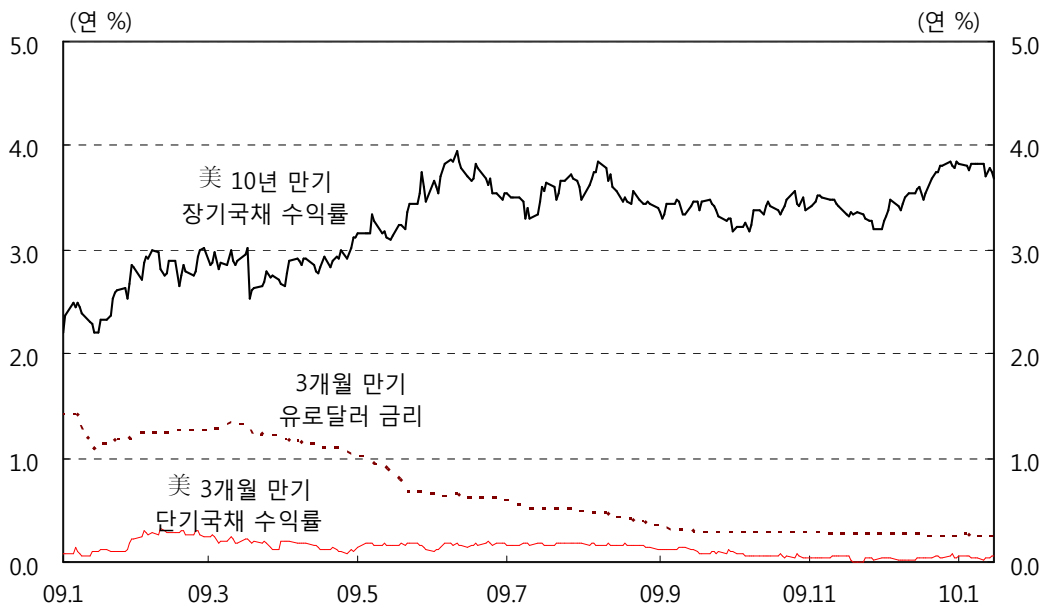
▶ 장기금리 : 하락

- 장기금리 (10년 만기 국채) : 1.8일 3.83 % → 1.15일 3.67 %
- 단기금리 (3개월 만기 재정증권) : 1.8일 0.04 % → 1.15일 0.05 %

- 미국 장기금리는 중국의 지준율 인상에 따른 세계 경기회복 둔화 우려, 일부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전주말대비 -0.16%p)

* 12월중 미 소매판매는 전월(1.8%)대비 0.3% 감소, 1월 둘째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는 44.4만명으로 전주대비 1.1만명 증가(1/14)

- 반면 단기금리(3개월 만기 재정증권)는 전주대비 0.01%p 상승



▶ 환율 : 미 달러화, 對유로화 강세 · 對엔화 약세

· 달러/유로	:	1.8일	1.4412	→	1.15일	1.4382
· 엔/달러	:	1.8일	93.27	→	1.15일	9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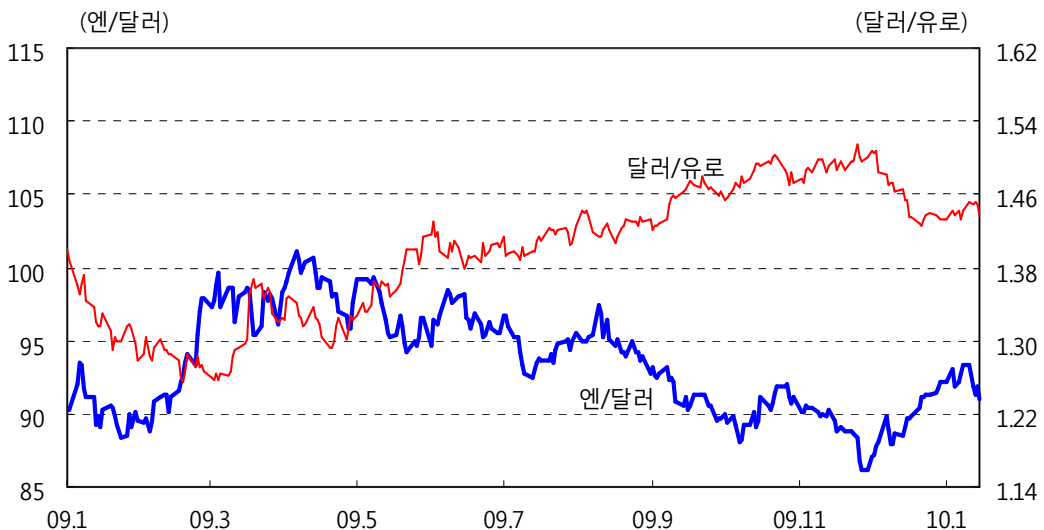
- 미 달러화는 Dudley 뉴욕연준 총재의 저금리 기조 지속 가능성 시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소폭 강세(전주말대비 0.2% 절상)

* Dudley 뉴욕연준 총재는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1/14)

** Merkel 독일 총리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해 유로지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1/14)

- 엔화에 대해서는 미·일 재무장관의 외환시장 안정지지*, Dudley 뉴욕연준 총재의 저금리 기조 지속 가능성 시사** 등으로 약세(전주말대비 2.5% 절하)

* Kan 일본 재무상은 Geithner 미 재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양국이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G7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확인(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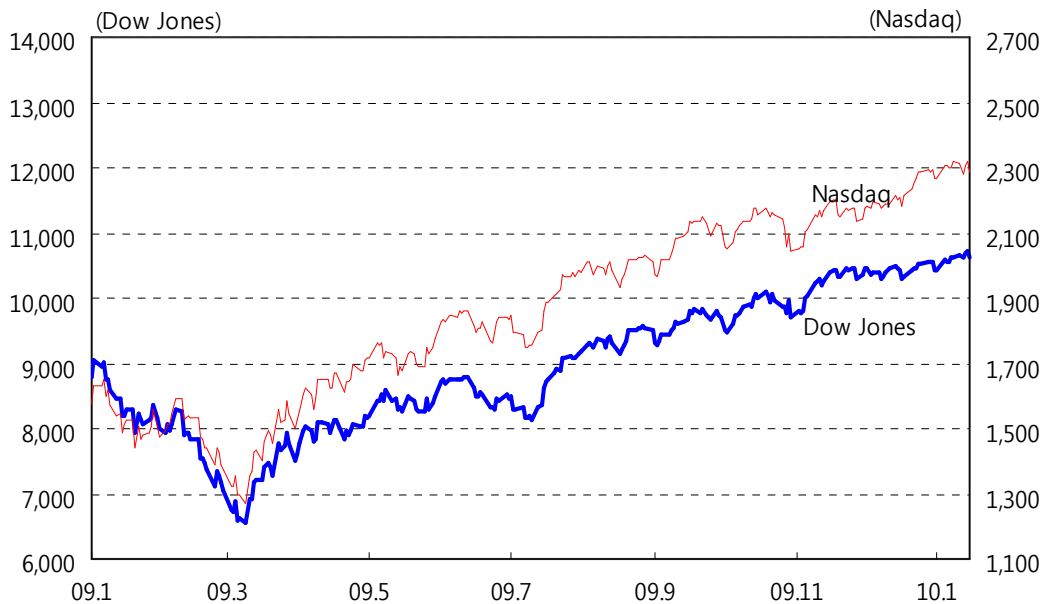


▶ 주요국 주가 : 미국 · 유로지역 하락, 일본 상승

- 미국(Dow Jones) : 1.8일 10,618.19 → 1.15일 10,609.65
- 유로(Euro Stoxx) : 1.8일 3,017.85 → 1.15일 2,940.25
- 일본(Nikkei 225) : 1.8일 10,798.32 → 1.15일 10,982.10

○ 미국 주가는 미 연준의 완만한 경기회복세 확산 언급(Beige Book, 1/13)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준율 인상, JPMorgan의 4/4분기 중 매출 부진에 따른 금융주 약세* 등으로 약보합 마감(전주말대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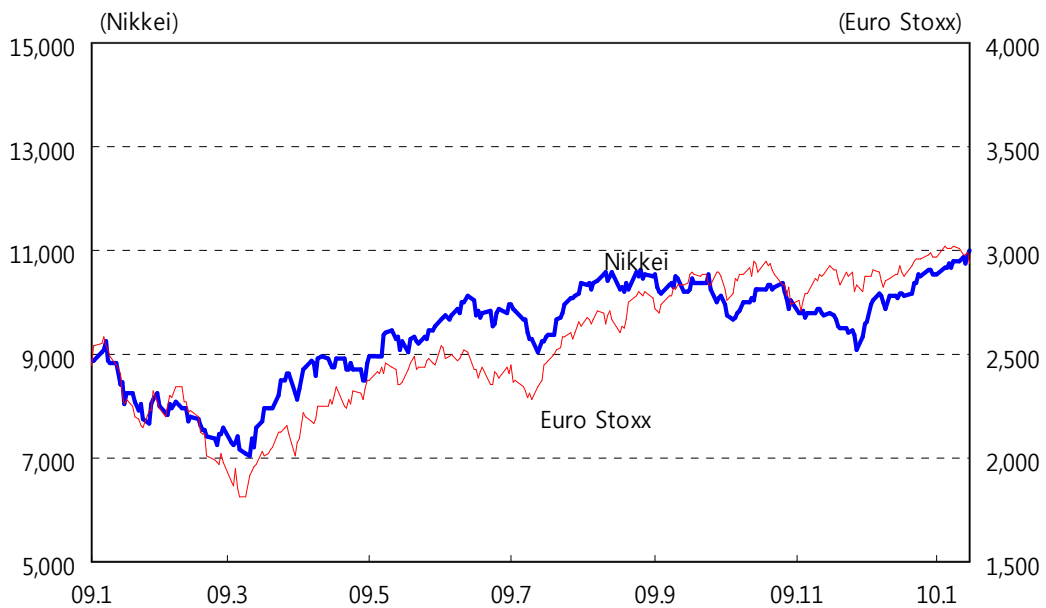
* 4/4분기중 JPMorgan의 매출액은 252.4억달러로 예상치(262.1억달러)를 하회(1/15)



o 유로지역 주가는 중국의 지준을 인상, Societe Generale의 대손상 각 발표(1/13) 및 JPMorgan의 4/4분기중 매출 부진에 따른 금융주 약세 등으로 하락(전주말대비 -2.6%)

o 일본 주가는 중국의 12월중 수입 증가세 확대* 및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수출주 및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전주말대비 +1.7%)

* 중국의 12월중 수입 증가세가 전월보다 큰 폭 확대(11월 전년동월대비 26.7% → 12월 55.9%, 1/10)



국제금리·환율 및 주가지수

(기말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15일
<미국 국내금리, 年 %>¹⁾								
페더럴펀드목표금리	1.00	2.25	4.25	5.25	4.25	0.0~0.25	0.0~0.25	0.0~0.25
프라임레이트	4.00	5.25	7.25	8.25	7.25	3.25	3.25	3.25
단기채정증권 ³⁾	0.92	2.21	4.07	5.02	3.24	0.08	0.05	0.05
장기국채 ⁴⁾	4.25	4.22	4.39	4.70	4.02	2.21	3.84	3.67
<여타 주요국 금리, 年 %>¹⁾								
일본 콜금리	-	-	-	0.25	0.50	0.10	0.10	0.10
ECB RP 금리	2.00	2.00	2.25	3.50	4.00	2.50	1.00	1.00
영국 공정금리	3.75	4.75	4.50	5.00	5.50	2.00	0.50	0.50
<유로시장 금리, 年 %>¹⁾								
유로 달러 ⁵⁾	1.15	2.56	4.54	5.36	4.70	1.43	0.25	0.25
유로 엔 ⁵⁾	0.06	0.05	0.07	0.57	0.90	0.83	0.28	0.26
유로 파운드 ⁵⁾	4.04	4.89	4.64	5.32	5.99	2.77	0.61	0.61
EURIBOR ⁶⁾	2.12	2.15	2.49	3.72	4.68	2.89	0.70	0.68
<환율>²⁾								
US\$/SDR	1.4860	1.5478	1.4293	1.5044	1.5785	1.5403	1.5677	1.5713
₩/US\$ ⁷⁾	106.95	103.76	117.45	118.78	113.04	90.23	92.10	90.93
US\$/€	1.2586	1.3558	1.1840	1.3196	1.4589	1.3978	1.4316	1.4382
US\$/£	1.7850	1.9184	1.7211	1.9588	1.9847	1.4626	1.6154	1.6262
<주가지수>								
Dow Jones	10,454	10,783	10,718	12,463	13,265	8,776	10,428	10,610
Nasdaq	2,003	2,175	2,205	2,415	2,652	1,577	2,269	2,288
Nikkei	10,677	11,489	16,111	17,226	15,308	8,860	10,546	10,982
Euro Stoxx	2,761	2,951	3,579	4,120	4,400	2,448	2,965	2,940

주 : 1) Bloomberg 2) Reuters 3) 3개월 만기 4) 10년 만기
 5) 런던시장 기준 6) 3개월 만기, European Banking Federation에서 산출
 7) 동경시장 기준

국제원자재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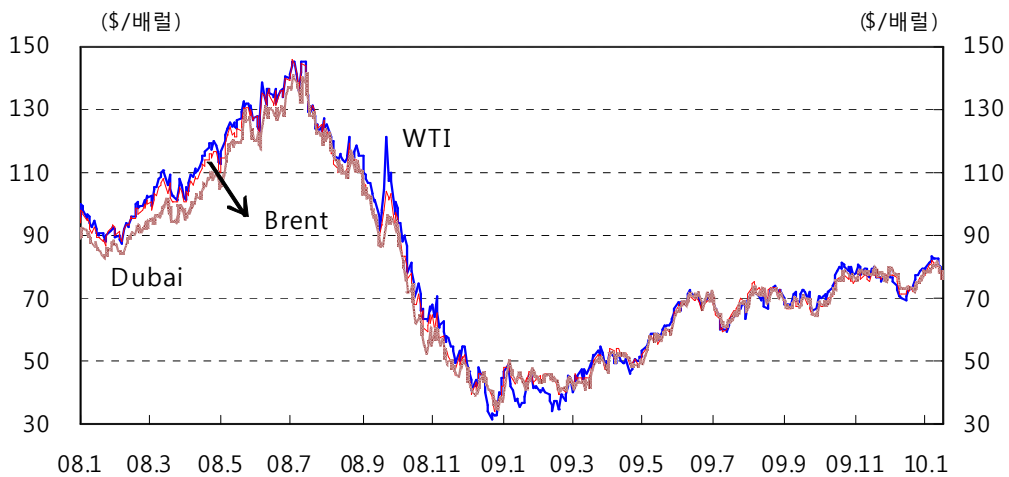
▶ 원유 가격 : 하락

· WTI	:	1. 8일	82.75 달러	→	1. 15일	78.00 달러
· Brent	:	1. 8일	80.77 달러	→	1. 15일	76.52 달러
· Dubai	:	1. 8일	79.99 달러	→	1. 15일	76.49 달러

- WTI 유가는 미국의 한파 완화 예보*, 미 석유재고 큰 폭 증가**, 중국의 지준율 인상에 따른 세계 경기회복 둔화 우려 등으로 전주말 대비 5.7% 하락

* 미 국립기상청(NWS)이 이번주 후반부터 평년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Bloomberg, 1/11)

** 1. 8일 기준 중간유분(1억 6,040만배럴) 및 원유(3억 3,104만배럴) 재고는 전주말대비 각각 135만 및 370만배럴 증가(EIA,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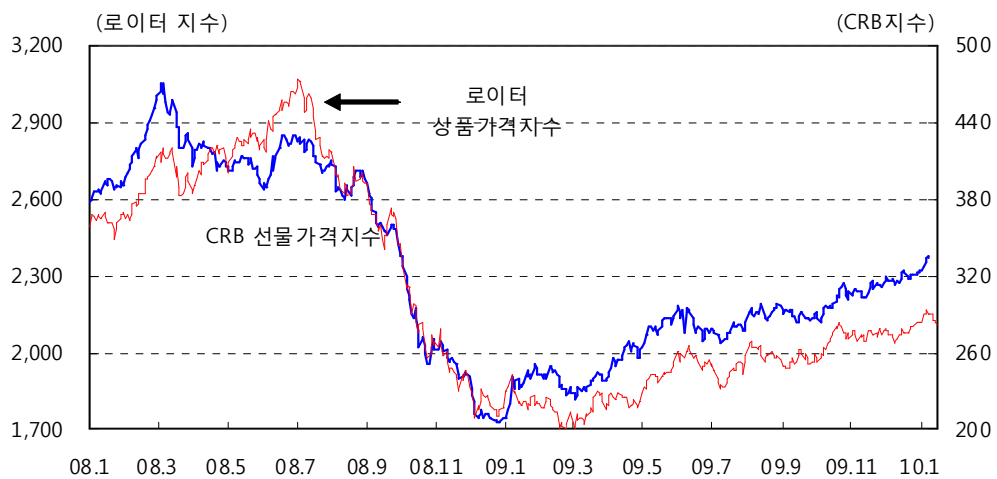
▶ 로이터지수 · CRB지수: 하락

- 로이터상품가격지수 : 1. 8일 2,370.63 → 1. 15일 2,278.04
- CRB선물가격지수 : 1. 8일 290.77 → 1. 15일 281.41

○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전주말대비 0.1% 하락

○ Reuters-Jefferies CRB선물가격지수도 전주말대비 3.2% 하락

— 에너지(-5.2%), 곡물(-3.6%), 공업용 원자재(-0.8%) 등이 하락



▶ 비철금속 가격 : 동 아연 하락, 알루미늄·니켈 상승

· 동	: 1. 8일	7,434.00 달러/톤	→	1. 15일	7,402.75 달러/톤
· 알루미늄	: 1. 8일	2,249.50 달러/톤	→	1. 15일	2,276.75 달러/톤
· 니켈	: 1. 8일	17,832.00 달러/톤	→	1. 15일	18,527.00 달러/톤
· 아연	: 1. 8일	2,489.75 달러/톤	→	1. 15일	2,441.75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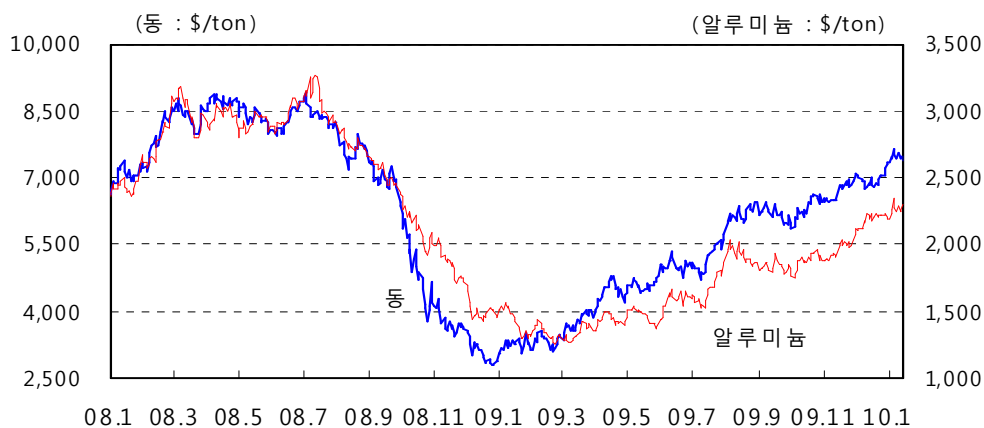
○ 동 가격은 가격 조정 가능성*, 중국의 수요 감소 예상** 등으로 전주말대비 0.4% 하락

* Santiago Gonzalez 칠레 광산부 장관은 세계 구리 재고량이 70만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동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급격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Reuters, 1/12)

** Deutsche Bank는 2010년중 중국의 동 수입이 비축물량 축소로 전년대비 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1/12)

○ 알루미늄 가격은 미국의 알루미늄제품 주문 증가* 등으로 전주말대비 1.2% 상승

* 미국알루미늄협회(Aluminum Association)가 미국의 12월중 알루미늄제품주문지수가 전월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알루미늄 시장의 수요회복 가능성이 제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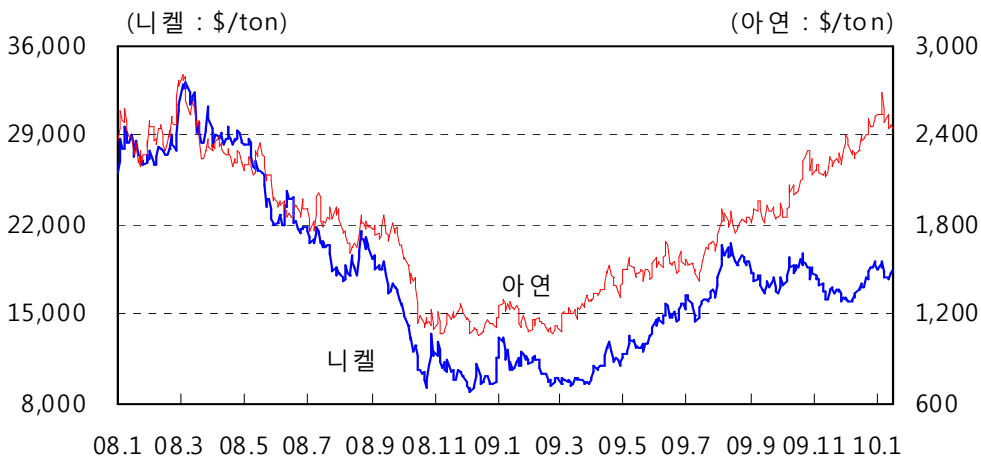
- 니켈 가격은 일부 생산업체의 재가동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격전망 상향 조정** 등으로 전주말대비 3.9% 상승

* Vale사는 2009. 7월 이후 노조파업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Sudbury 니켈광산을 비노조 인원 및 사외 인력을 통해 이달 말부터 재가동할 것이라고 발표 (1/12)

** Goldman Sachs는 선진국 경제회복 및 신흥시장국의 지속적인 금속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10년중 니켈 가격을 톤당 17,195달러로 종전(11월)대비 0.3% 상향조정(1/15)

- 아연 가격은 LME 재고 증가 등으로 전주말대비 1.9% 하락

* 1. 15일 기준 LME 재고는 세계 수요 감소 등으로 전주말대비 0.6% 증가한 48.8만톤을 기록(1/15)



▶ 농산물 가격 : 하락

· 소맥	: 1. 8일	568.5 센트/부셸	→ 1. 15일	510.0 센트/부셸
· 옥수수	: 1. 8일	423.0 센트/부셸	→ 1. 15일	371.5 센트/부셸
· 대두	: 1. 8일	1,013.0 센트/부셸	→ 1. 15일	974.0 센트/부셸
· 원면	: 1. 8일	72.44 센트/파운드	→ 1. 15일	72.08 센트/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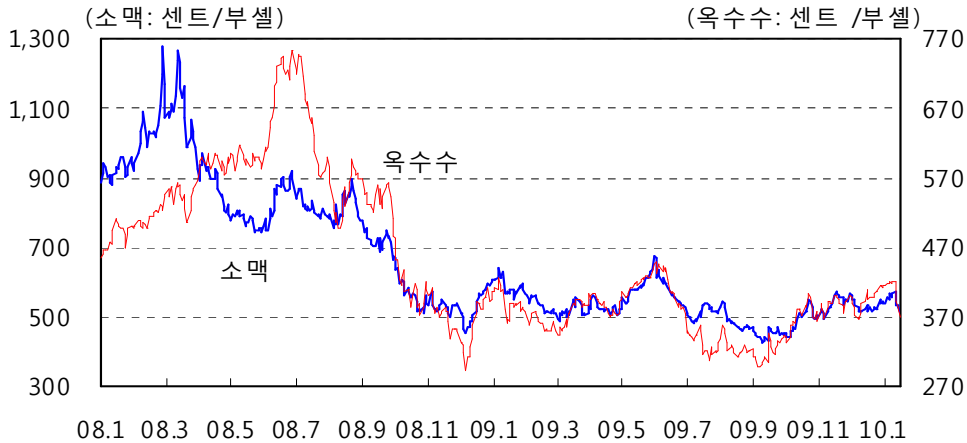
○ 소맥 가격은 미국의 파종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 재고전망 상향조정** 등으로 전주말대비 10.3% 하락

* 미국의 2009.8~11월중 겨울밀 파종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4% 가량 감소한 3,710만에이커로 예상(4,059~4,092만에이커)을 크게 하회(미 농무부, 1/12)

** 미 농무부는 2009~10년중 세계 소맥 재고전망을 195.6백만톤으로 종전(12월)대비 2.5% 상향조정(1/12)

○ 옥수수 가격은 미국의 생산 증가 예상* 등으로 전주말대비 12.2% 하락

* 다우존스 서베이는 미국의 2009~10년중 옥수수 생산이 128.1억만부셸로 전년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1/11)



- 대두 가격은 중국의 수입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파종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 증대 가능성** 등으로 전주말대비 3.8% 하락

* 중국해관총서는 2009년중 중국의 대두 수입이 4,255만톤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다고 발표(1/12)

** MF Global은 소맥 파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 4백만에이커의 농지에 대두가 대체 파종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1/14)

- 원면 가격은 세계 수요 위축* 등으로 전주말대비 0.5% 하락

* 1.1~7일중 미국의 원면 수출(18.1만톤)은 세계 수요 위축 등으로 전주대비 2.0% 감소(1/15)



▶ 반도체 가격 : SD램 하락·낸드 플래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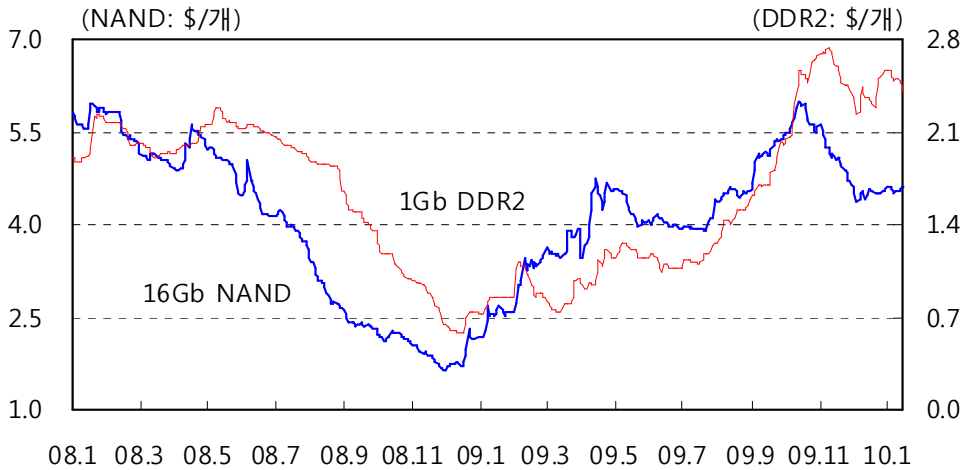
- 1Gb DDR2 SD램 : 1. 8일 2.49 달러 → 1. 15일 2.41 달러
- 16Gb NAND flash(MLC) : 1. 8일 4.52 달러 → 1. 15일 4.61 달러

o SD램(1Gb DDR2, 아시아 현물시장 기준) 가격은 노트북 출하량 감소* 등으로 전주말대비 3.6% 하락

* 대만 4대 노트북 생산업체(Quanta, Compal, Wistron, Invector)의 12월중 노트북 출하량은 1,230만대로 전월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추정 (Digitimes, 1/13)

o 낸드 플래시 메모리(16Gb MLC) 가격은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전주말대비 1.5% 상승

* Kingston(메모리 생산업체)이 Hynix에 메모리 제품 물량 확보를 위해 1억달러의 선수금을 지급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동 제품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제기(Digitimes,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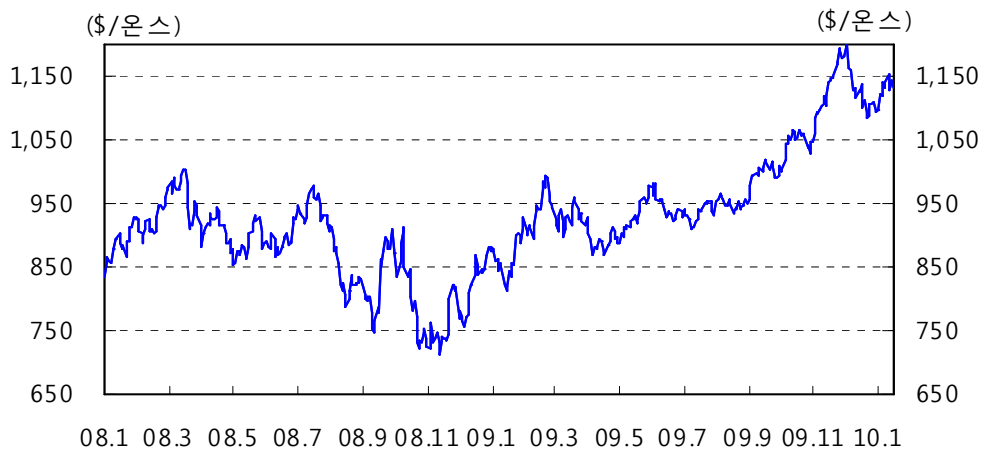


▶ 금 가격 : 하락

· 금 : 1. 8일 1,138.3 달러/온스 → 1. 15일 1,130.9 달러/온스

○ 금 가격은 금 ETF의 매입 감소*,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전주말대비 0.6% 하락

*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 Gold Trust의 금 보유량이 1.15일 현재 1,115.8톤으로 올해 들어 18톤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백금 및 팔라듐 ETF의 상장으로 투자 수요가 분산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Reuters, 12/31)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기말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2월말	1.15일
<현물유가>¹⁾								
미 국 WTI (달러/배럴)	32.52	43.45	61.04	61.05	96.00	44.60	79.36	78.00
북 해 Brent (")	30.48	40.24	58.87	60.13	93.89	41.76	77.20	76.52
U A E Dubai (")	27.90	33.11	53.19	56.71	89.06	37.02	78.29	76.49
<주요 상품지수>								
로이터상품가격지수 ²⁾	1,664.5	1,570.8	1,796.6	2,228.6	2,592.9	1,746.5	2,321.6	2,278.0
C R B 선물가격지수 ¹³⁾	255.3	283.9	331.8	307.3	358.7	229.5	283.4	281.4
<비철금속 가격>¹⁾								
동 (달러/톤) ⁴⁾	2,318.0	3,264.0	4,542.0	6,308.0	6,641.5	3,041.8	7,342.0	7,402.8
알루미늄 (") ⁴⁾	1,588.8	1,962.5	2,280.3	2,831.0	2,358.3	1,507.8	2,197.0	2,276.8
니 켈 (") ⁴⁾	16,583.0	14,877.0	13,372.0	34,025.0	26,010.0	11,609.0	18,452.0	18,527.0
아 연 (") ⁴⁾	1,003.8	1,253.5	1,900.5	4,290.0	2,353.5	1,180.3	2,529.0	2,441.8
<농산물 가격>¹⁾								
소 맥 (센트/부셸) ⁵⁾	377.0	307.5	339.3	501.0	885.0	610.8	541.5	510.0
옥수수 (") ⁵⁾	246.0	204.8	215.8	390.3	455.5	407.0	414.5	371.5
대 두 (") ⁵⁾	789.0	547.8	602.0	683.5	1,199.0	972.3	1,039.8	974.0
원면 (센트/파운드) ⁶⁾	75.1	44.8	54.2	56.2	68.0	49.0	75.6	72.1
<반도체 가격>								
1Gb DDR2 SD램(달러/개)	-	-	-	-	1.90	0.73	2.57	2.41
16Gb NAND flash(") ⁷⁾	-	-	-	15.68	5.83	2.20	4.62	4.61
<금 가격>¹⁾								
금 (달러/온스)	415.5	438.5	517.0	636.7	833.9	882.1	1,097.0	1,130.9

주 : 1) Bloomberg 2) 1931.9.18 = 100 3) 1967 = 100 4) 런던시장(LME) 기준
 5) 시카고시장(CBOT) 기준 6) 뉴욕시장(ICE NYBOT) 기준 7) MLC 기준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 미 국

○ 4/4분기중 실질GDP 증가세 큰 폭 확대 전망

(전기대비, %)

발표일	지 표	발표기관	전망치 ¹⁾	전기치
1. 25	· 12월 기존주택판매	부동산중개인 협회	-7.2	7.4
27	· 12월 신규주택판매	상무부	4.5	-11.3
29	· 4/4분기 실질GDP(속보치, 연율)	"	4.3	2.2
2. 1	· 12월 개인소득	"	0.3	0.4
	· 1월 ISM 제조업지수(기준치=50)	구매관리자 협회	..	55.9
3	· 1월 ISM 비제조업지수(기준치=50)	"	..	50.1
5	· 1월 비농업취업자수 증감(천명)	노동부	..	-85

주 : 1) Bloomberg

▶ 유 럽

(전기대비, %)					
	발표일 ¹⁾	지 표	발표기관	전망치 ²⁾	전기치
유로지역	1. 28	· 1월 경기체감지수	EU 집행위원회	..	91.3
	29	· 1월 소비자물가(속보치) ³⁾	EU 통계청	..	0.9
		· 12월 실업률	"	..	10.0
	2. 2	· 12월 생산자물가 ³⁾	"	..	-4.4
		· 12월 소매판매	"	..	-1.1
독 일	1. 26	· 1월 Ifo지수	독일 Ifo	..	94.7
	28	· 1월 실업률	독일 통계청	..	8.1
	2. 5	· 12월 산업생산	"	..	0.7
프랑스	2. 1	· 12월 생산자물가 ³⁾	프랑스 통계청	..	-4.5
	5	· 12월 상품수지	"	..	-53
영 국	1. 26	· 4/4분기 실질GDP(속보치)	영국 통계청	..	-0.2
	2. 4	· BOE 기준금리	BOE	..	0.5

주 : 1) 변동 가능

2) Bloomberg

3) 전년동월대비

▶ 아시아지역

(전기대비, %)

	발표일	지표	발표기관	전망치 ¹⁾	전기치
일 본	1. 29	· 12월 실업률	총무성	..	5.2
		· 12월 가계소비지출	총무성	..	2.2
		· 12월 소비자물가 ²⁾	총무성	..	-1.9
		· 12월 광공업생산	경제산업성	..	2.6
	2. 5	· 12월 경기동행지수 ³⁾	내각부	..	95.9
		· 12월 경기선행지수 ³⁾	내각부	..	91.2
중 국	2. 1	· 1월 구매관리자지수 ⁴⁾	국가통계국	..	56.6

주 : 1) Bloomberg 2) 전년동기대비 3) 2005 = 100 4) 기준치 = 50

주요국의 경제지표

1. 한	국	-----	68
2. 미	국	-----	70
3. 일	본	-----	71
4. 유	로 지	역 -----	72
5. 독	일	-----	73
6. 영	국	-----	74
7. 프	랑	스 -----	75
8. 중	국	-----	76
9. 홍콩	콩	-----	77
10. 대만	만	-----	78
11. 싱가포르	포 르	-----	79
12. 인도	도	-----	80
13. 러시아	시 아	-----	81
14. 브라질	라 질	-----	81

< 부 록 >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현황	-----	82
환율 · 국제금리	-----	83
국제원자재가격	-----	84

해외경제 포커스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남미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과 전망 · 최근 금속 가격 급락 요인과 향후 전망 · 중국의 핫머니 유출과 경제에 미칠 영향
제2009-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 원자재 시장 동향 · 아시아 경제의 최근 동향 및 전망 · 영란은행, 정책금리 사상 최저수준(1.5%)으로 인하
제2009-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자체 채권발행 검토배경과 향후 전망 · 일본의 2009년도 감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제2009-4·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채가격 급락 가능성 검토 · 중국의 최근 경기 악화 추세와 2009년 전망 · 영국 정부, 2차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0.0~0.25% 유지
제2009-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제조업 위축 현황 및 시사점 · 유럽중앙은행 · 영란은행의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정책 채택 가능성 · 최근 일본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 배경
제2009-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 원자재 시장 동향 · 최근 영국 파운드화 약세 배경 및 전망 · 중국의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 부실화 가능성
제2009-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종간 현물가격 역전현상 지속 요인 · 선진국 재정적자 확대의 문제점과 전망 · 최근 엔화 강세의 특징과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대두와 향후 대응 ·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제2009-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금융안정대책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 중국의 대규모 경기대책 추진의 영향과 문제점 · ECB·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및 영란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제2009-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유로지역 국가의 실업대책 및 향후 전망 · 일본의 소비자청 설립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제2009-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연준의 국채 및 기관채 매입 결정 배경과 평가 · 최근 일본의 Job Sharing 도입 논의와 전망 · 중국 양회(兩會) 주요 논의 내용과 평가
제2009-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글로벌 고용사정의 특징과 시사점 · 미국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방안의 내용과 평가
제2009-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금융기관 지원 내용과 평가 · 일은 3월 단칸(短觀)으로 본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제2009-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EU 회원국 지원방안 논의와 향후 전망 · ISDA의 CDS 거래 표준화 협약과 시장의 평가
제2009-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경제위기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말레이시아 신정권 출범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제2009-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E·FRB의 양적완화정책 운영 점검과 ECB의 채택 가능성 · 최근 인도네시아 총선과 향후 경제 전망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1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인플루엔자 A의 확산과 경제적 영향 · 최근 중국 고용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제2009-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향후 전망 · ECB·BOE의 통화정책 결정내용과 전망
제2009-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신흥시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유입 확대 배경과 시사점 · 중국의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른 재정상황 평가
제2009-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축통화 논의 내용과 향후 전망 · 일본의 수출 급락 요인과 시사점
제2009-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국제유가 상승요인과 향후 전망 · 일본은행의 2008회계연도 자기자본 확충 배경과 평가
제2009-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시사점
제2009-2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TARP 자금 조기상환 배경과 예상되는 문제점 · 일본의 실업률 상승과 고용시장의 구조변화
제2009-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금융의 현황과 예상되는 변화 · 최근 유종간 가격역전의 원인
제2009-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개인소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영향 · BRICs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 및 평가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2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B/S 변화와 연준 수지에 미치는 영향
제2009-2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 현황 · 미국 금융기관 CEO의 보수 규제에 관한 논란
제2009-2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노동자과건법 개정 관련 주요 논점 및 전망 · Bernanke 미 연준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회 보고
제2009-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운용과 향후과제
제2009-3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부동산시장 회복 조짐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미국의 2·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평가
제2009-3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유럽 금융구조의 특징과 은행부실정리의 중요성
제2009-3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전반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 · 미 연준의 출구전략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2009-3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과제 · 유럽의 Covered Bond 시장 현황과 전망
제2009-3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냉키 의장 재지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일본의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
제2009-3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최근 중국 금융기관 대출급감의 배경 및 전망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37호	· 미국의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재연 가능성 · 중국 GDP 통계의 신뢰성 문제
제2009-38호	· 증권화시장 재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 ·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제2009-39호	· 미국 연준 TALF 제도의 운영성과 · 중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현황
제2009-40호	·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향후 전망 · 일본의 국채(JGB) 발행 여건 변화 및 영향
제2009-41호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최근 미 국채시장의 호조 배경과 향후 연준의 출구전략 방향
제2009-42호	· 미국의 수출주도 성장 가능성
제2009-43호	· EU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과 영향 ·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 확대 가능성
제2009-44호	·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
제2009-45호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독일의 수출주도 성장 패턴과 향후 전망
제2009-46호	·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 내용과 전망 · 디커플링(decoupling)에 관한 논란
제2009-47호	·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평가 · 인플레이션에 관한 미 연준의 견해와 시사점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9-48호	· 원유 파생상품시장 규제강화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 최근 일본정부의 디플레이션 선언 배경과 전망
제2009-49호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주요국의 통화정책 출구전략 이행 현황
제2009-50호	· 최근 엔화강세 요인과 일본정부의 외환시장개입시 일본은행의 역할
제2009-51호	·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과 전망 · 최근 아시아 국가 자산시장의 버블 논란
제2009-52호	· 「2009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회고
제2010-1호	· 미·중 경제관계 변화 및 향후 전망
제2010-2호	·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동향 · 일본의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과 전망
제2010-3호	· 미국의 청년실업 급증 배경과 정책 대응 · 향후 중국의 물가 여건